(大正九年 第三種郵便物認可)

朝鮮日報

今日四面

新聞價 壹個月八拾錢 壹年九圓 先金 / 廣告料 五號活字一行壹圓 / 發行所 朝鮮日報社 / 發行人 金東成 / 印刷人 金炯元

時評

東拓小作權移動

東拓이 小作權을 함부로 剝奪한다는 報道가 連續還至한다 그런데 小作權은 무릇것업시 朝鮮사람의 手中에 잇는 그것이다

東拓이 今年에 朝鮮에다 移植케 되는 移民戶數에 對하야는 아즉 詳細한 數字를 모르거니와 第二回募集成績에만 依하여도 五町步移民이 三百餘戶라 한다

五町步移民이 三百戶라면 小作面積은 千五百町步다 朝鮮小作人은 千五百町步의 小作權을 日本人의게 剝奪되지 아늘수 업는 運命이다 지금 朝鮮小作農家가 耕作하는 平均率로 論하면 無慮三千戶以上의 小作人이 一時에 生活上根據를 失하게 된다

×

一時에 生活上根據를 失하게 된 三千戶의 小作農의 萬餘人口의 살곳은 어듸인가

商業도 工業도 發達되지 못한 朝鮮은 破產當한 農家를 收容할 곳이 업다 그들은 漂浪 流離 餓死밧게 取할 길이 업슬 것이다 뜻기는 運命의 길에 放任하면 그길밧게 갈길이 업지 못할 것이 明白한 事實인 以上 그들을 收容할 餘裕는 업슬가 小作權의 移動! 尋常히 看破할 問題가 아니다

培高紛糾는 尙乎

培高紛糾事件이 世間의 物議거리가 되지 이미 旬餘이라 일즉 吾人도 本欄에서 學校과 아울러 學生에게 對하야 一言을 告한 바 잇섯다 그런데 同校紛糾는 오히려 疑雲이 重疊하야 解決의 曙光이 보이지 안는다

×

敎師와 學生 關係는 恩誼와 親愛와 和沖을 前提로 하고 成立된 것이니 反目과 軋轢과 抗爭이 잇게 되면 벌서 그 本意가 沒却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未熟한 學生의 品性을 陶冶하는 것이 敎師의 任務이니 奔放하는 感情을 善導하고 澆漓한 意氣를 붓도두고 洋洋한 希望을 助長하야 그 天分을 發揮케 함에 遺憾이 업시 하는 것이 當然한 바이다 秩序와 規律을 써나 社會生活을 할수 업는 者이니 品行을 陶冶함에 秩序와 規律을 重視할 바이나 秩序를 爲한 秩序 規律을 爲한 規律로써 한갓 學生의 奔放하라는 感情을 抑壓하고 澆漓한 意氣를 꺽고 洋洋한 希望을 흐리는 것은 取치 아니할 바이다

×

그리고 學生은 모름이 先生도 全能이 아닌 人間인 것을 記憶하고 先生의 缺點을 摘發하되 吹毛覓疵類에 흐르지 말고 智識을 要求하고 個性의 發展을 本分으로 하는 領域을 넘어 敎師의게 挑戰하는 것은 그 不可함이 아닐가

埃及改造內閣成立
자굴파샤氏또首相兼外相

(『카이로』十三日發) 選擧한 結果 埃及政府는 今番에 改造를 斷行하엿는데 從前에 比하면 非常히 鞏固하게 되 新內閣은 『자굴파샤』氏가 依然히 首相兼外相이 되엿더라

商議案은 重大問題
英外相의 佛國訪問用務

(『나우엔』十四日發) 巴里特報에 依하면 目下 『제네바』國際聯盟理事會에 出席中인 英國外相 『쳄바렌』氏는 十六日 巴里를 訪問하고 首相 『에리오』氏와 安全保證, 軍備縮少, 撤兵等의 諸問題에 關한 重大商議를 할터이더라

共產黨候補演說會
會衆騷擾死傷三十餘名

(『나우엔』十四日發) 來二十九日에 行할 獨逸大統領選擧에 共產黨에서 立候補한 『루데만』氏는 十三日 普魯西 『하레』市에서 選擧戰을 開始하얏는데 右 最初의 演說會에는 英佛兩國의 共產黨領袖의 一人이 獨逸國民及政府에 對하야 大侮辱的言辭를 弄하얏슴으로 演說場監視의 任에 當하얏든 警官은 直히 演說會의 解散을 命하엿스나 會衆은 會場에서 退場할 事를 不肯함으로 警官은 不得已 坐席으로부터 會衆을 驅逐코자 하매 共產黨員은 此에 抵抗하야 遂히 流血의 騷擾를 見하기에 至하얏는데 右騷擾에 關한 警官側의 報告에 依하면 死者二名 負傷者三十名을 生하엿고 共產黨員은 死者六名을 不下하리라고 斷言하얏더라

米蘭條約
米國上院通過

(華盛頓十三日發) 昨年 華盛頓에서 締結된 酒類輸送에 關한 米國和蘭條約承認은 十三日 上院을 通過하엿더라

카卿의 其後容態

(倫敦十三日發) 樞密院議長及上院內總理 『카손』卿의 手術後 容態書는 今日 發表되엿는데 此에 依하면 氏는 全혀 危險狀態를 經過하엿다 할수 업스나 體量도 그리케 衰弱하지 안코 睡眠은 매우 充分히 하는 中이더라

大規模의 電燈材料注文
日本需要에 酬應

(紐育十三日發) 東邦電燈株式會社에서 今回 『웨스트인구하우스』國際電氣會社에 對하야 高壓電力의 模裝에 要하는 諸材料 總額 二百萬弗의 注文을 契約하얏는데 右는 日本의 電力需要激增에 應하기 爲함이라 더라

戰鬪益益激烈形勢
孫氏逝去와 吳兆秀氏陳述

(廣東十三日發) 吳兆秀氏는 三日 新聞記者와 會見할 際에 左와 如히 말하더라 孫文氏의 死는 東江西江方面의 政局에는 何等影響이 업시도 리혀 一層 戰鬪가 激烈하게 될 形勢조차 보인다 目下 形便으로는 孫文氏 後繼者로서 適當한 人物이 업다 國民黨은 未久에 委員을 任命할 터이다 그러나 其委員長은 單히 任務를 管掌함에 不過함이라 하더라

露奉交涉은
露領事館開館後

(奉天十四日發) 露奉交涉에 就하야 委員會를 奉天에서 開催하기로 決定하고 張作霖은 十三日 奉天露國領事館에 委員會開催를 催促하엿는바 露國領事는 來二十日 開館式을 擧行할 것임으로 此가 終한 後 二十五日에 委員會를 開催하자고 回答하얏더라

高橋農相의
今後進退如何

(東京電) 曾히 病勢로 療養中이던 高橋政友會總裁는 兩三日來로 全快되엿슴으로 十六日부터 登廳하기로 되얏는데 氏가 最近 總裁辭任의 決意를 某氏에게 洩하엿다는 說을 傳하나 此는 直히 信用키 不能하고 더욱 高橋總裁가 現內閣에 列할 時의 意向으로 보면 早晩에 行財整理 普選의 實施 貴院改革의 實行等 所謂 護憲三派內閣의 根本政策이 豫定대로 解決될 時에도 黨閣에 列하야 何時外지던지 現內閣의 指示를 願하는 배 아니오 勿論 適當한 期會를 取하야 其進退를 決할 것은 贅說을 不要할 것이나 今에 直히 辭任할과 如한 事는 無할 것이오 從此 其眞相도 分明케 될것이더라

議長不信과
政友本黨 四派交涉案承認

(東京電) 政友本黨에서는 十四日午前十一時半부터 秘密代議士會를 開하고 議長問題에 就하야 協議하얏는데 議長不信任案에 署名한 者가 旣히 二百八十餘名에 達하얏슴으로 强硬한 意見이 出하야 幹部는 四派協議의 結果에 基하야 種種鎭撫에 努力하얏고 一旦 休憩後 午後에 再次 討議를 行하야 結局 四派交涉案을 承認함에 至하얏더라

革新에서도 承認 =(東京電) 革新俱樂部 代議士會는 十四日午後零時半부터 議長問題에 就하야 協議가 有하얏는데 尾崎氏로부터 院內는 四派協議의 結果로 保證되다 할지라도 院外者에 對한 取締가 無하면 將來議員의 言論과 進退는 威脅될 것이라 하야 其不承을 表明하매 湯淺, 林田, 의 峠氏도 同感의 意를 述하얏스나 結局 大多數는 四派交涉案을 承認함에 至하얏더라

外人土地權不許
王奉天省長의 嚴令

(奉天十四日發) 王奉天省長은 東三省의 土地權에 對하야 一切 外國人에게 許可치 말라고 各縣知事에게 嚴命하엿더라

貴院改革委員
十四日議事經過

(東京電) 貴族院改革案委員會는 十四日午後一時三十分에 開會하고 質疑에 入하야

松本蒸治氏 互選規則은 實質上 貴族院令의 一部로 此의 改正은 貴族院의 同意를 要할 것인데 此重大한 規則을 改正함에 就하야는 政府는 아즉도 考慮中이라 하는 것은 政府의 不用意를 示하는 것이다

江木書記官長 考究中의 言句에 對하야 釋明하얏고

佐竹三吾氏 貴族院議員定員을 問한 後 院令第七條廢止의 理由를 問하매

江木書記官長 院令第七條廢止는 不必要함을 因함이라고 答하고 次에

池田長康男 管原通敬 石塚英藏氏等의 質疑가 有한 後

松本蒸治氏 憲法第三十四, 第三十五條로부터 互選規則과 院令과의 關係를 質하매

江木書記官長 反對意見을 憲法으로부터 說하야 答辯하고

松本氏 更히 院令은 一種特別의 勅令임을 述하야 他의 一般勅令에 規定事項을 委任하는 것은 無關하다 述하매

加藤首相 互選規則은 本改革案中에 規定치 안코 互選規則의 條項을 貴族院令中에 入함에 對하야는 政府는 同意치 안는다

고 答한 後 尙且 二三氏의 質疑가 有한 後 四時에 散會하얏더라

午後再開 貴族院普選委員會 十四日午後一時四十七分 再會 質議에 入하야

花井卓藏氏 第八條 第百十七條의 選擧事務官吏及樞密顧問官의 衆議院議員兼任에 就하야 問하매

阪本一男 北海道會議員 府縣會議員의 衆議院議員兼務를 禁하고 市會議員의 兼務를 禁치 안는 것은 如何

潮政府委員 衆議院及府縣會의 會期가 重複되야 地方自治를 損할 虞慮가 잇슴에 依함이며 今回의 改正에 就하야도 此點을 考慮하야 此點을 存置케 한 것이다

坂本男 衆議院會期는 府縣會의 會期와 重複되지 아니하며 市會議員을 十一條에 包含치 아니한 것은 他에 事情이 잇는 것이 아닌가

潮政府委員 他에 事情이 업다

花井氏 更히 內相의 指揮監督, 樞府顧問官의 選擧에 就하야 疑義를 質한 後 寺田其他數氏로부터 質問이 잇고 三時二十五分에 散會하엿더라

貴院改革法案과
公正會態度緩和

(東京電) 貴族院改革案의 有爵議員互選規則改正에 就하야는 研究會보다도 더 尊히 公正會가 其利害關係를 痛感하는 바임으로 此點에 就하야는 深甚한 注意를 拂하는 바 最近 貴族院의 空氣가 頗히 硬化하얏슴으로 政府側에서도 公正會側에 對하야 此互選規則의 改正에 就하야 某種의 暗示를 與하얏다고 觀測할 點이 有한데 研究會가 鑛道問題其他 諸問題를 取하야 反政府的 氣勢를 煽하는 境遇임에 不拘하고 安靜한 態度를 取하는 것은 全혀 此間의 消息을 語하는 것이라고 보는 者가 有한 模樣이더라

現內閣에 重大局面
貴族院의 三大問題執頓
結局은 政府要望에 屈從?

(東京電) 議會의 本會議는 僅히 十日밧게 남지 아니하얏는데 貴族院은 豫算案, 普選案, 貴族院改革의 三大問題를 가지고 近年未曾有의 困難한 政狀을 示하는 中임에 對하야 其終局에 現內閣은 倒潰할 運命에 陷할는지 又는 議會解散이 던지의 重大局面을 豫期하는 中인데 一方 貴族院의 中心勢力인 研究會는 元老西園寺公이 近時 政變을 不好하는 心意를 諒解하고 最高幹部인 近衞, 靑木, 水野, 酒井, 前田 等의 長老等은 一切 穩便히 進할 方針인데 此에 對하야 渡邊, 大河內, 福原少壯等은 純理論을 가지고 邁進함과 共히 其反政府的 心情을 爆發케 하라고 努力中임으로 同會內에는 今에 三大案을 中心으로 紛糾의 禍가 惹起되는 中인바 終局에는 結局 政府의 要望에 應하야 大團圓을 告하게 되리라 觀測되더라

豫算問題
與黨은 依然樂觀

(東京電) 豫算에 對한 貴族院의 態度에 關하야 與黨側에서는 依然 樂觀하는 中이니 公正會는 原案贊成에 傾하고 又 研究會는 甚히 强硬하나 硬派를 알하는 者는 僅히 數名에 不過하고 多數는 從隨한 意見을 가진 好意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나 特히 研究會가 政府에 反對하나 政府와 爭鬪할 決心만은 업는 듯한즉 今에 直히 反對의 態度를 決하기까지에는 至치 아니할지라 現에 豫算審議期間을 延長함은 其의 長될사록 貴族院의 形勢가 緩和될 證左이라 觀測되는 바 時日이 延할 더이다 다만 憂慮할 것은 研究會가 騎虎의 勢에 잇서서 面目上 豫算에 손을 接觸치 아니치 못할 境遇인데 同會幹部도 此點을 考慮함과 如한즉 그다지 큰 事態에는 至치 아니하리라 더라

朝鮮臺灣에
普選法適用問題
貴院委員會質疑

(東京電) 貴族院普選委員會는 十四日午前十時三十七分에 開會하고 質疑에 入하야

澤柳政太郎氏 獨立生計의 條件을 附하면 普選이 되지 안는가 成年에 達한 者를 有資格으로 하지 안는 것은 何故인가 如斯한 選擧權에 大擴張을 實施하면서 朝鮮臺灣을 考慮치 안는가 官立學校敎師는 被選擧權이 無하고 私立學校敎師는 此를 有하는 것은 不公平치 안은가

若槻內相 如斯한 條件이 有하면 普選을 見키 不能하고 政治能力은 民의 能力보다 進步함을 要하는 바 臺灣朝鮮人의 政治能力이 發達치 못한 以上에는 不可能한 바오 私立學校敎師는 國庫의 支給을 受치 아니하야 拘束이 少함으로 被選擧權을 有한 것이다

水野直子 諸國法制를 比較하면 內相의 條件附普選은 普選이 아니라는 斷案을 宣하야 准戶主의 制限이 有하야도 普選

若槻內相 當時의 財界가 此에 答하얏고

水野氏 大條의 三은 貧困에 依하야 生計不能한 者라고 解釋함이 잇는가

若槻內相 貧困하야 生活上 援助를 受치 안는 者는 缺格者가 아니다

水野氏 更히 二三의 質疑가 有한 後 零時九分에 休憩하다

三浦將軍重態

(東京電) 三派聯立內閣成立 當時에 斡旋役에 努力하던 三浦觀樹將軍은 元來 健康이 不保되야 熱海別莊에 滯在하야 專혀 靜養中이던 바 肺炎에 罹하야 十四日에는 遂然 重態에 陷하얏슴으로 此二三日中에는 가장 警戒를 要하는 容態이더라

拓殖省設置案
委員에 附託

(東京電) 拓殖省設置에 關한 建議案은 十二日 下院本會議에 提案되야 東鄉實氏가 登壇하야 提案理由를 說明한 後 中國朝鮮在留帝國臣民取締法廢止法案委員會에 倂託하엿더라

風雲매우險惡
一大騷動瞬間에 惹起될듯
立會演說場의 雜沓

(東京電) 純正普選派로부터 國技館에서 立會演說의 申請을 바든 與黨三派側에서는 旣報와 如히 바로 此를 快諾하고 憲政八, 政友四, 革新二名을 出場식히기로 限定하고 氏名을 보내엇더니 純正派로부터 三名으로 하야 指定하엿슴으로 人選한 結果 憲政會로부터 柔道三段 中野正剛, 政友會로부터 同二段 山口義一, 革新으로부터 松本君平의 三代議士를 出場식히기로 決定하엿는데 此에 對하야 三派側에서는 警視廳을 信賴할 수 업다하야 十四日夜에는 市內各方面에 數萬枚의 宣傳 『비라』를 撒布하는 同時에 國技館前의 脚戲茶屋全部를 租借하고 萬一을 準備키 爲하야 約二千名의 院外團을 召集케 하엿다 翌十四日午前十時에는 壯士가 드러가게 되엿다 相手인 純正派에서도 十四日夜深更外지 黑龍會本部에서 對策을 講한 結果 頭山翁을 爲始하야 內田良平, 田中捨身等 諸幹部가 立하기로 하엿는데 事件이 重大하야 大阪, 九州로부터 壯士等이 續續 上京하는 中이며 一方 警視廳에서는 午前에 繼續하야 午後七時外지 大討議를 開한 結果 國技館의 集會는 四圍의 事情에 鑑하야 此를 認키 難하다는 方針을 定하고 此旨를 兩派에 通告하얏는데 純正派에서는 今日에 至하야 此를 中止키 不能하다 하고 兩派의 壯士들은 續續하야 國技館으로 向하는 中임으로 警視廳은 開會에 先하야 兩國橋上에서 此를 制止코자 川淵警務部長은 約一千名의 警官隊를 指揮하야 嚴戒하되 若制止를 不聽하는 者는 最初부터 拘留에 處할 意氣로써 風雲이 頗히 險惡하며 國技館內外 特히 兩國橋附近에는 戰場氣分이 漲溢하야 一大騷動이 이러날 形勢이더라

露書記官一行
東京到着

(東京電) 駐日勞農聯邦國大使 『코프』氏가 日本에 드러가기 先하야 露大使館設置를 準備키 爲하야 北京出發한 一等書記官 『크스네조』, 外交官補 『드르그파』兩氏는 十三日午後零時十五分에 東京驛着 特急으로 入京하엿는데 『크스네조』氏는 말하되 日本은 大端 그리웁게 생각하는 곳이다 余는 八年前에 日本에 來한 事가 잇섯다 『코프』氏를 따라 新大使로서 來하게 된 것은 기뿐 일이다 余는 여기서 代理事務를 보게될 터이며 余는 莫斯科의 形便은 말할 수 업스나 日露國交回復當時 北京에 在한 露國人은 狂喜하엿다 이것이 밧버하엿다 兩國關係는 益益親密을 더하게 되리라 云云 그리하고 『코스모폴』通信員 『스쥐파크』夫妻를 비롯하야 日露協會外務省方面에서 出迎한 이와 一一히 握手하고 帝國『호텔』에 入하엿는데 當局에서는 警官多數를 派하야 身邊을 警戒하는 中이더라

孫中山과 中國革命(三)

三月十四日 民世學人

昔者에 李鴻章 歐洲에 巡歷하야 널리 列國의 文物을 視察할새 伯林에 이르러 꾸 『비스마르크』를 차저 談論하야 生平의 經歷을 述하고 겸하야 長髮賊討滅의 勳功에 미치어 새일이 『비스마르크』冷笑하여 曰 『나는 異民族을 爲하야 同胞를 殘滅한 者를 尊崇치 안노라』고 李鴻章은 默然히 말이 업고 다만 滿面慚愧하야 그 자랑할 바를 못닛고 하얏다 長髮賊! 그들의 太平天國의 討滅한 曾國藩, 左宗棠, 胡林翼, 李鴻章, 彭玉麟, 劉坤一 等은 다 漢人의 出이라 太平天國이 미쳐 平定된 後 天下의 大勢가 이미 漢人에게 돌어와서 滿淸의 勢威자못 衰微의 極에 達하엿거늘 오히려 所謂 『同治中興』의 世代를 맨들어

絕世의 妖姬인

西太后로서 垂簾聽政의 幕을 열기 前後 三次 淸朝의 福祿과 中國四萬萬人의 運命이 자못 崎嶇한 險路에서 지게되어 孔敎를 尊崇하고 및 皇帝를 保하라로 하는 康有爲等의 所謂 『變法自强』의 革新運動도 實現하여 볼 餘裕도 업시 袁世凱의 變節的 告發로 그 淺薄의 無比한 精兵으로 光緖帝로 하야금 瀛臺幽囚의 몸을 지어 乾坤一擲의 天下革新의 計劃도 그 귀다만 덧업는 愧安榮華의 꿈자리로 돌어가고 畢竟은 이 香山縣의 貧寒한 一少年 中山孫文氏로 하야금 革命의 元勳 解放戰의 偉人을 짓게 하니 故人所謂 陰陽屈伸의 자취이냐? 日淸戰役이 어울어져 天下의 視聽모다 東北으로 集中되고 西南의 一角 다시 顧視하는 者 업스려 하매 그는 곳 興中會의 勇士를 激勵하고 三合會의 好漢들과 聯絡하야 兵勇을 汕頭 西河, 香港에 募集하고 武器, 彈藥을 海外로서 密輸하야 一擧에

廣東城을 奪取

하려다가 擧兵하는 前夜 不幸히 陰謀가 發覺되어 잡히어 刑場에 나아가는 同志를 뒤로 두고 一身으로 蒼皇히 海外에 亡命한 後 辮髮을 變服하야 歐山米水에 漂浪하며 그의 革命의 理想을 宣布하고 外滿興漢, 帝政打倒의 潛勢力을 扶植하든 苦心慘澹, 至誠盡瘁의 自强한 生涯는 吾人이 제 枚擧할 겨를이 업는 바이다 鎭南關襲擊의 失敗 惠州奪取計劃의 顚覆 汕頭騷動의 不成功 黃花崗頭의 悲劇이 모다 그의 懷抱를 이루지 못하고 기어히 열렬한 同志가 暗殺과 官軍의 銃劍에 無慘히 넘어진 그들의 자랑인 七十二의 英雄 北京城正陽門畔頭의 爆彈! 鳳山將軍을 거꾸러트린 爆彈! 울려나아가는 그의 爆發의 소리! 자라가는 不安과 恐怖의 空氣! 거칠어가는 一般靑年들의 叛逆의 氣勢! 이뒤는 墓로써 記錄하여 가는 歷史의 페이지

犧牲과 失敗

로써 開拓되어 가는 그의 地盤! 그야 孫中山의 辭令에 依함이 어나 하니거나 그 革命의 氣運은 이미 南中國 一帶로부터 길히 長江의 流域 中部中國 累千里의 地方에 넘치게 되엇다 一九一一年七月 四川省에 國有反對의 運動이 한번 넘어 蜀中의 人民자못 騷亂을 繼續한지 累月 郵傳大臣 盛宣懷 鐵道督辦大臣 端方과 함의 자못 任地方民의 不平의 標的이 되든 湖北 麾下陸軍協統領 黎元洪의 砲兵旅團을 急先鋒으로 一擧에 武昌을 占領하고 漢陽을 占領한 後 四川의 騷亂은 霎時에 革命亂으로 湖南, 江西, 江蘇, 安徽 北京城外가거의 戰鬪場으로 化하야 一世凱의 出廬와 함의 段祺瑞 그 確固한 形勢를 비록 革命의 奪取는 비록 革命의 진바잇섯스나 革命와 함의 揚하할 수업는 바가잇서 端倪할 수업는 袁世凱로써 老大

凡庸한 慶親王

의 孤兒寡婦를 恫喝하고 한편으로 革命의 首領들과 夾擊하야 擁立하고 折衷을 거듭하야 畢竟 革命을 받고 灤洲의 軍命을 받고 第二十鎭統制 張紹曾의 國政更革의 威嚇的 提案과 함의 滿皇室의 退位와 共和政治의 運을 보게 되니 이것이 中華民國 誕生의 事情이오 孫中山 生平의 努力이 비롯오 偉大한 成功을 거두려는 志士得意의 秋이엇다 當初 武漢革命이 勃發될 때 事ㅣ猖猝에 發展되어 黃興, 宋敎仁, 黎元洪을 擁하야 兵變을 일으키고 아즉 孫中山에게 謀議치 못하엿든 바이라 當時 米洲에 잇서 멀리 祖國革命의 壯擧를 들은 孫中山은 一電을 보내어 同志의 將士를 激勵하고 忽遽히 軍資를 모아 故國에 도러와 一九一二年一月로써 南京에 第一次 臨時政府를 組織하고 推戴되어 臨時大總統이 되니 嗚呼 斯人

一生得意의 秋!

그의 絕頂! 妥協革命이라는 外人의 嘲笑와 함의 一切의 權力을 들어 다시 依舊한 舊阿崇인 淸朝의 舊臣 官僚와 軍閥의 頭目들에게 내여주고 徐徐히 다시 亡命, 脫走의 悲慘한 生涯를 할 밧게 업든 이 孫中山! 그대는 또한 薄倖한 偉人임을 免치 못하엿고나!

大阪紀念博開場

(大阪電) 大阪紀念博覽會는 十五日부터 大阪天王寺, 大阪城 二個所에서 開會되얏는데 會期는 四月末日外지이며 會場에는 滿蒙館 朝鮮館을 設하야 同方面의 參考資料를 蒐集한 外 交通, 運動, 音樂, 食糧館을 設하야 各方面으로 本大阪의 諸相을 表現하얏스며 大阪城의 一區에는 大阪夏多陣으로부터 落城에 至하기까지 及하야 秀吉時代의 遺物을 陳列하야 非常히 繁華하더라

河站產組總會

河站產業組合에서는 本月十五日 午前十時에 同組合事務所內에서 第十一回 定期總會를 開하고 任員改選과 豫算通過의 件等 其他 數件을 決議하얏다더라(江華)

露國避難民의
加奈陀移民

最近 美國 哈爾賓等地에서 露國避難民中에 加奈陀行 移民을 募集하야 旣히 哈爾賓에서 二十名(三十五家族)의 應募者가 잇섯고 尙히 引續 應募者中인데 此事業은 哈爾賓 『오렌브루그』殖民團事務所에서 加奈陀南洋鐵道會社의 保證을 得하야 取扱하는 것으로 白軍沒落後 『오렌브루그』殖民團과 住軍의 一團이 哈爾賓에 移住하야 그곳에 移民團體를 組織한 것으로 昨年에 旣히 前後二回에 亘하야 加奈陀에 移民을 渡航케 한 것인바 逐年 窮狀에 陷하는 中인 露國避難民 救濟의 目的이라 더라

十四年度
追加豫算內容
國田財務局長代理 談

旣報와 如히 十四年度 追加豫算 二百六十五萬五千三百四十二圓은 衆議院에 提出되엿는데 其中 歲入部의 一時借入金 百八十七萬七千四百卅圓은 舊朝鮮銀行의 前年度剩餘金中의 年度剩餘金中 七十七萬七千九百十二圓을 追加豫算에 繰入하엿는데 此는 支出의 不足分을 十二年度 剩餘金으로부터 補充한 것이다

歲出經常部에는

一、國債整理資金特別會計에 繰入키 爲한 四十一萬九百四圓은 旱害救濟借入金의 利子及整理로 因한 退職公債의 利子에 合한 것이며 臨時部에는

一、旱害救濟費는 前記와 如히 此를 土木、土地改良直接費 等에 使用하는 것

二、災害費의 八萬四千百五十一圓은 沿船舶喪失한 咸北港灣局 山警察署、江原道鐵原法院支廳의 復舊에 要하는 것

三、退職特別給金及退職手當 二十七萬五千八百十二圓은 第三期約 六百名 及 地方廳待遇官吏에 對한 整理의 元金 退職手當 十八萬八千八百十一圓과 警察慰勞金 入萬七千圓이며

四、學資臨時加給의 七千七百七十六圓은 總督府로부터 官立學校職員 二十名을 學術硏究키 爲하야 海外에 派遣한 者에 對한 費用이 十四年度 豫算에 八千八百十一圓과 四萬七千四百圓을 計上하엿는대 爲替時勢의 變動으로 因하야 日貨가 下落하엿기 때문에 此의 不足額을 計上한 것이다

司法代書令
自五月一日實施

朝鮮司法代書人令은 旣報와 如히 五月一日로부터 施行하는 旨를 府令으로써 公布되엿는데 施行規則 內容은 全文十九條인바 其中 主要한 것은 左와 如하더라

第一條 司法代書人인 認可를 受코자 하는 者는 本籍住所氏名生年月日及事務所의 位置를 記한 願書에 履歷書를 添付하야 所屬地方法院長에게 差出함이 可함

第三條 司法代書人은 認可證을 受한 日로부터 一個月以內에 事務所를 設하고 運滯업시 所屬地方法院長에게 屆出함이 可함

第四條 司法代書人事務所를 移轉코자 할 時는 所屬地方法院長의 認可를 受함이 可함

第十四條 司法代書人은 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한 境遇에는 十日以內에 其旨를 所屬地方法院長에게 屆出함이 可함

一、本籍又는 氏名을 變更한 時

二、廢業한 時

司法代書人이 死亡한 境遇에는 戶主家族又는 同居者로부터 十日以內에 其旨를 所屬地方法院長에게 屆出함이 可함

第十五條 司法代書人은 左의 各號에 規定한 行爲를 함을 不得함

一、書類의 作製에 對하야 名義의 如何를 不問하고 書記料의 外에 報酬를 請求하거나 又는 此를 受하는 事

二、囑託人의 印章又는 其署名捺印한 白紙를 領置하는 事

三、故意로 書類의 紙數를 增加하거나 又는 不必要한 書類를 作製하는 事

四、住所又는 事務所에서 他人으로 하야금 法律事務를 取扱시키거나 又는 此를 他人의 法律事務所에 貸與하는 事

第十八條 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한 者는 五十圓以下의 罰金拘留又는 科料에 處함

一、認可를 受치 안코 司法代書의 事務에 從事한 者

二、司法代書의 業務禁止又는 停止處分에 違反하거나 事件簿又는 其他의 書類

三、本令에 違反한 司法代書人

四、事件簿에 虛僞의 記載를 한 者

五、事件簿其他의 業務에 關한 書類의 檢閱을 拒絕하거나 又는 其提出命令에 違反한 者

第十九條 司法代書人은 自己又는 其家族이 他人의 囑託에 應하야 出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故로써 本令에 規定한 期間의 規定을 不得함

鐵筆寓漫 投稿歡迎

斷絕의 念慮가 잇다는 英佛

大邱手形交換高

大邱各銀行의 二月中 手形交換高는 如左하다고 (大邱) (單位圓)

鮮銀支店	仕拂	五〇一、九八二
	持出	五九九、六四〇
殖銀支店	仕拂	四三二、三七九
	持出	九四九、八九〇
鮮南銀行	仕拂	五一一、五九七
	持出	四一一、一三九
大邱銀行	仕拂	三七七、〇九〇
	持出	三八八、七四八
漢銀支店	仕拂	三二〇、九六九
	持出	二五三、九七九
慶一銀行	仕拂	三四一、四四一
	持出	一八七、二三三
共立銀行	仕拂	一二五、七五一
	持出	一三〇、五八〇
大邱郵便局	仕拂	六六、四六二
	持出	六七、四六三
合計	仕拂	二二一八、六七四
	持出	二二一八、六七四
前月比較		二二〇〇、〇三五
		二〇〇、〇三五

人事消息

▲車相瓚氏(開闢社員) 道號準備次 明朝 黃海道方面에

▲趙彰九氏(培光學院敎師) 校務를 帶하고 十四日 入京

八面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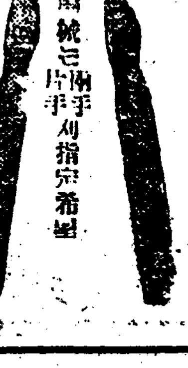
○ 獨逸 『룸헨』 菜會社로부터 日本外務를 經由하야 朝鮮產 黑鉛을 注文하엿다

○ 哈爾賓 商品陳列所에서는 鎭南浦商業會議所에 白米三千五百『푸ー드』를 注文하엿다 農產鑛產의 販路擴張은 반가운 現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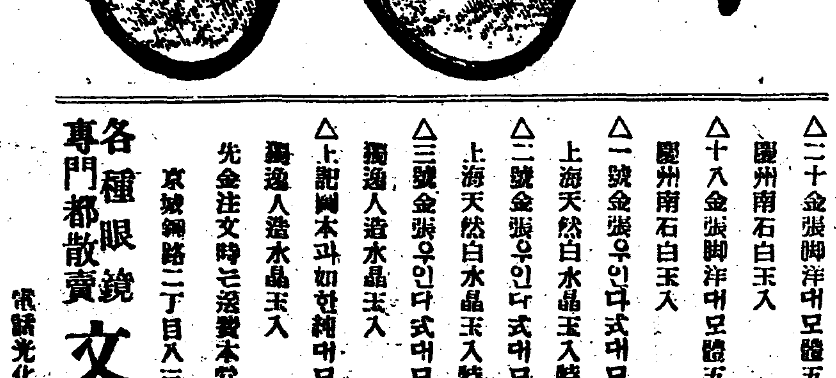
○ 但 黑鉛의 見本은, 安州 柴田鑛務所에서, 發送하기로 하엿고 白米는 鎭南浦 早速, 齋藤 等 精米業者에게 交涉中이라 한다, 結局 우리와는 無關係.

○ 어린애 울린다고, 要童 打殺한 者가 잇다, 矯角殺牛 以上의 失策

◎宣傳
◎姜明花、戀愛唱歌集 (또나왓소) 再版出來 定價三十五錢
各種準備書、自習書、日鮮玉篇、柔術獨習、現行庭球法、野球法、現行蹴球法、强力體操法、養鷄法、雄辯書簡、生產秘方、其他數十萬種
一個月間은 特別大割引 出版販賣部
世界書畫堂
屛風次、附壁畫、簇子、唐畫、日本製、朝鮮製、大中小、牧丹彩畫、梅蘭菊竹、山水墨畫、都賣業製造部
京城 (振替京城二七〇四番)

理髮機具原價大廉賣
朝鮮日報讀者優待
十五種一組 並品三圓 上品三圓五十錢 特品五圓 送料四十錢
十六種一組 並品三圓五十錢 上品四圓 特品七圓 送料五十錢
理髮機械 同 가위 빗 面刀 석 手面 미리 刷毛 등
信用絕大

▼當社 寶品은 特히 保證함 他店에 比較하야 注文하시옵
▼都賣 價格에 付 注文은 必히 先金을 要함
京城本町二丁目 (振替京城一二三二 電話本局二五二七)
우쓰보야貿易部

勿失好期할 新製品!
今般 木社에서 新製造한 海東木은 優美하고 堅固 無比하오니 諸氏는 一次 試用하심을 仰望하압고 特히 男女學生 又는 婦人衣裳에 適合할 黑色及灰色을 染하며 化學作用으로 洗濯及太陽에 耐久 不變色임으로써 弊社의 特色을 實驗하는 同時에 我邦 特有의 名聲下에서 信用과 讚助를 博得코저 하오니 引續 多數試用하심을 伏望하나이다(地方注文迅速酬應함)
營業科目
◎海東木 黑色 灰色 白色 周衣次一件 一疋 (價格) 貳圓七拾錢
◎瓦絲織 黑色 灰色 白色 周衣次一件 一疋 (價格) 四圓五拾錢
毛織防寒周衣次외투감 黑色 眞灰色 一件 九圓
京城府 洋芹洞 九十四番地
▲海東染織社

◎朝鮮慶州南石玉大特價販賣!!
△二十金張脚洋대모體五〇番 拾貳圓
慶州南石白玉入
△十八金張脚洋대모體五〇番 拾壹圓
慶州南石白玉入
△一號金張우인다式대모體五〇番
上海天然白水晶玉入特價九圓五十錢
△二號金張우인다式대모體五〇番
上海天然白水晶玉入特價八圓五十錢
△三號金張우인다式대모體五〇番
獨逸人造水晶玉入 四圓八十錢
△上記 獨逸人造水晶玉入 四圓五十錢
△上記圖本과 如한 純대모體五〇番
先金 注文時는 送費 本堂에서 自擔함

各種眼鏡專門都散賣 文明堂
京城鍾路二丁目八三番地 電話光化門一〇三三番

市內各中等校 入學志願激減
작년은재작년보다감소되고 금년에는더욱격감되엇다고
이것도注目할社會相

『알어야산다』는 텰측(鐵則)은 잘살라면 더욱만히 배워야한다는교훈을 나혀다삼일운동 이후로조선의 피끓는 청년으로부터 희망이 가득한어린 아동들에게까지알고저 하는 향학렬(向學熱)은 참으로그 의 극칠바이업서경향을물론하고『새살림』에눈뜬조선민족은 이르는곳마다 입학난(入學難)의 원성이 사모치엇다 그리하야 재작년까지도 지원자일에일곱명은 학교에 들지못하는부서운수자를내이엇섯는데 작년부터는 수년래추세(趨勢)에비초여 오히려 감소되더니금년에이르러서는 작년보다 더욱감소되얏다 그러면『새살림』이 실케되야가는 조짐인가! 그러치안으면 장래의 새살림보다는눈압헤살림이 더어려운 탓인가?엇지하얏든지자못주목할현상이다

四割乃至八割減
십사일현재각사립고보상황

금년은 시내각중등학교의 졸업식도 일르거니와입학생 모집긔도례년보다 매우일러서 발서마친학교도 잇는터인데 먼저시내에잇는 각사립고등보통학교 뎡도의학교 입학상황을 삶히건데 십일에 지원서접수를 마친중앙고보(中央高普)의금년입학지원자수는 삼백사십여명으로 작년의오백오십일명 보다 약사할(四割)이감소되얏스며 십사일로써지원접수를 마친 배재(培材)와휘문(徽文)고보도금년의지원자수인(십사일정오현재)칠백삼십륙명을 작년의량교합하야 일천삼백삼십명에비하면약팔할(八割)이나 감소되얏는데이것은오히려감소의비률(比率)이만치안은학교이라 하겟스며 압흐로아즉도접수중인 각중등뎡도 학교의지금까지 지원자수효를 드건데참으로 한심할뎡도 이라한다 하로를 격한 보성고보(普成)의지원자수는 이백십여명(약백명모집)으로이것을 작년의칠백오십여명에 비하면역시 칠할오분가량 감소되얏슴으로 대톄로보아사할내지 팔할의 감소를보게되리라한다 이제 시내각사립중등뎡도학교의 입학지원자 상황을됴사하건대 아래와갓다

市內私立中等校入學志願者數(三月十四日正午現在)

校名	募集人員	接受期限	志願者數	昨年志願者數
中央	二〇〇	三、一〇日	三五〇	五五一
培材	二〇〇	三、一四日	三九七	五八〇
徽文	二〇〇	三、一四日	三三九	七五〇
普成	一〇〇	三、一六日	二一〇	七五〇
養正	一〇〇	三、二〇日	一五〇	四八七
徽新	一三〇	三、三一日	五〇	二〇〇
協成	一二〇	四、四日	五三	三一〇
中東	—	三、二三日	九〇	三、〇〇〇
南商	七〇	三、二五日	五〇	二五〇
善隣	一二〇	三、七日	四九六	九〇〇

官立校는反對現狀
졸업후의출세가쉬운싸닭

시내에서만이라도해마다보통학교의소학교나 혹은 로동야학등이증가됨에 비초며 그입학지원자수가 느러가야할 중등뎡도학교입학생은 작년은 재작년보다 금년은 작년보다 해마다 감소되야감은 그원인이 어데잇는가! 이것은 그대로보아 넘길수업는 중대문뎨이거니와 이것은 대개내에잇는 관립 고등보통뎡도학교의례이요 사립중등뎡도학교의례이 시겟다 입학시험은 이미십오일로써 마치게되얏는데 금년 지원자수는 데일(第一)과데이(第二)고보를 합하야 일천사백 칠십팔명으로 작년일천삼백사십륙명에비하면 약일할가량이 증가되얏스며 또졸업하고 바로선생이나 또는은행회사가타 관공뎡에 취직하게되며 혹은철도국에 근무하게되는각상공업학교나 텰도학교(鐵道學校)나사범학교의연습과(演習科)등에 입학지원자가느러감도또한 원인이라고 볼수잇다하겟다

◇官立高普志願數

	募集人員	志願數	昨年度
一高	二〇〇	八三八	八〇六
二高	一五〇	六四〇	四五〇

開城簿記硏究次
일본학자가개성에온다고

조선개성(開城)이라면조선상업디로유명한 땅이오 또개성의독특한부긔법(簿記法)이발달된곳으로경제사상(經濟史上)에도개성부긔(開城簿記)라는명칭이잇는터인데 최근에 일본중앙대학교수(中央大學敎授) 태뎐텰삼(太田哲三)씨가조선문화상에중요한연구거리가되는개성부긔의그유래(由來)며 계통(系統)이며또는긔장방법(記帳方法)등을 연구하고저 사월경에 조선개성으로오기로 결뎡되엇다한다 이에대하야태뎐교수는말하되 지금으로부터 약십년전에 선총독부로부터 개성 부긔에대한간략한 보고가잇슨후 경대(京大)의 대삼교수(大森敎授)와 신호고상(神戶高商)의 평정교수(平井敎授)등제씨가 개성부긔를 연구하엿는데 원래 개성이란땅은 배일상업디(排日商業地)로유명하여일본인으로 됴사하기가 어렵고참고자료(參考資料)와 열람(閱覽)도매우곤난합니다 그리고 의문이잇서서이를고려(考慮) 개성부긔에 대하야는 두가지로부터잇는 조선 독특한것이라는주장하는사람과비교뎍근대(近代)에드러서서서양부긔를신속히 수입하여 발달된것이라주장하는사람이잇는데아즉 자세한것을모르겟고 또긔장방법 가튼것도 자세히알수업스나 다행히나는 개성에나 의조선사람친구가 잇서서 그사람의 도음을 바더될더하게연구하여보려고 생각합니다하더라

培材生二百餘名 金華山에會集密議
퇴학당한학생의복교와 기타요구조건에대하야

십오일 오전구시경부터 서대문밧 의주통(義州通) 길거리에는배재학교(培材)모표를 부친학생이둘식 셋식 작을지어 금화산(金華山)꼴작이로 모혀들기시작하야 동열시경에는 약이백여명에 달하게되여 회의를 열고저 하엿스나 이것을안 소관서대문서원이금지를 하게되여 모혀든군중이일시에 산에허터 지게되매한참동안 금화산은 학생으로덥혓는데 마참석교(石橋)서대문서장 으로부터 불온한행동에 이르기전에는 감시만하고 집회는 해산치말라고 명하게되여 동일시경에 다시 일동은죽첨뎡(竹添町) 뒷산꼴작이로 모혀 서대문서로부터 출장한굴고등계주임(堀高等係主任)이하경계리에서 회의를 진행케되엿는데 토의코저하는 주요한문뎨는금번에 퇴학처분을 당한삼십오명을 전부복교(復校) 식힐것과또는긔일요구한조건을속히실행해달라는등문뎨이라더라

記者大會準備會
장소를옴겨모혀

십오일 오후여덜시에 시내종로중앙긔독 청년회관 안에서개최하라든 전조선긔자 대회준비위원회(準備委員會)는사정에의하야동시각에 수표뎡(水標町)조선교육협회 안에서 열기로변경되엿다더라

頻頻한同盟休學
안변석왕사학교 사오학년이맹휴

지난륙일에 안변군 사립석왕사학교(安邊郡私立釋王寺學校)데사학년생도 일동은 학교당국에진정서를 데출하고 즉시동맹퇴학을단행하엿슴으로 학교당국은그선후책을 고려하든중 동십일에 몰려히동교 데오학년생일동도계속하야 진정서를 데출하고맹휴를 행하엿는데 이제그내용을드러보면 교장의 여러가지처리가 학생의 불평거리가되엿다하며 이번맹휴의 리면에는상당한 흑막이잇다는데 이소식을들은 안변경찰서에서는 그뒤에선동자가 잇다하야 그소위선동자를됴사하는중이라더라(안변)

母女의情、同名의緣
일본경도에서서울까지모친찻자와 남남끼리모녀관계를맷기까지
종로경찰서에나타난두사람의운명에

同名異齡의兩女
동시에경찰에 불린것은무슨까닭

하고만흔인간긔구한운명에스을려이러나는 희극비극이 하로에도면스를네시간 일년이면 삼백륙십오일에과연얼마나나타날것인가? 시선(視線)이 밋치못하고 발거름이 닷지못하야 낫낫치보지못하고 일일히 듯지못하거니와 음(陰)으로양(陽)으로나타나는모든 사실을하나도 빼지안코드를수가잇고 볼수가잇다 하면인간은 언제나울거나 그러치아느면웃느라고모든시간을바치고말것이다 지난십이일아츰이다 시내종로경찰서에서는 청도갓고빌홍도가튼젊은녀자두사람을불러다가 장시간문답이잇슨후 실내는한바탕 우슴의마당을 이루엇다한다 이제그자세한 내용을듯건대 허리를쥐고 한참웃지아니할수업는 희극의일막이 숨어잇다한다 그두녀자중에 하나는 금년이십오세된윤경애(尹慶愛)란녀자이오 다른하나도 역시윤경애(尹慶愛)라는 방년십칠세되는처녀이라한다 엇지하여 이동성동명인 두녀자가 한뻬에경찰의 호출을바다관서에 발을드려노케되엿는가?

母女의情札
작년팔월이래 경성과경도사이에

작년팔월열이튼날이다 시내필운동(弼雲洞)일백삼십번디의삼호에사는신뎡보(申貞甫)(五三)라는녀자는 대구남성뎡정영발(大邱南城町鄭永發)의집에잇는 딸윤경애(一七)에게 편지를보냇다 그러나 그편지는번디가 불명함으로여러배달부(配達夫)의손으로손으로건너다니다가마츰내권긔남성뎡에사는리순규(李順奎)라는녀자의눈에 띄이게되엿다 리씨는배달부로부터그편지를차저가지고 일본경도시 삼조도려관(京都三條旅館)에 머무는윤경애(二三)에게보내게되엿다 멀리수륙수천리를 격하야 날마다고국을그리워 애닷는 한숨을쉬고잇던경애는 뜻밧게 어머니의 사랑이넘치는 글을밧게되매 깃붐과 설움에 억지할수업는 눈물을뿌렷다 즉시 붓을들어 가슴이어지는듯한한장의답장을써보냇다 이로부터 그모녀 사이에는계속하야 서로보고 십허못살겟스니하로라도 빨리맛나자는 뜻이 거운글발이 오고가고 하엿다 그러다가 마츰내어머니로부터 보고십허 병이낫느니 또는혼처를뎡해노앗스니 얼는 도라오라는 글이련일 오게되매 딸되는마음으로서 도라오지아니 할수업게되엇다 그리하야마츰내 조선을향하야 발길을옴겻다 그러나그는벌서그곳서주제곤(朱濟坤)이라는남자와혼인을맷고 몸이되엿는대 혼인 했단말을듯고 어머니는 더욱락망하는 편지를 보냇슴으로위로겸 도라온길이엿다

半萬里차저온 어머니가딴남
여기에도또동성명

지난일을 십오일아츰이다 가슴에는 잇업는 희망과 환희를품고 경성역에 나리여필운동 어머니를차저갓다 아!멋당을두고 어머니인줄알고 딸인줄밧고 애닷는편지를 주고밧고하다가 그래도참을수업시 반만리의 먼먼길을 넘고 바다를건너 차저온것이 생면부지(生面不知)인 남일줄이야 엇지 귀신이아닌사람으로서야 알앗스랴? 그들은실로밋고 바라는모녀는 아니엿다 차저온 윤경애는 근본충청남도텬안군 립장면도화리(忠南天安郡立場面桃花里)사는 윤순서(尹順西)의 딸로서 작년칠월에 한동리 배분순(裴粉順)이란녀자와꿈가튼생각을가슴에품고 고요한밤 만뢰가잠자는 틈을타서살그머니 농촌을떠나 번화한곳을 차저서대구(大邱)로 갓섯다 남성뎡한모퉁이에몃칠머물다가다 시한거름더뛰여현해탄(玄海灘)이란바다를 건너게되엿는데 첫편지를 전해주던 리순규는 그때잠간맛낫던 대구녀자이엿다 그후 경도에서 그럭저럭 세월을보내게 되든중 뜻밧게 신뎡보라는 명의로온어머니의 글을밧게 되엿다 경애가 생각하기는 자긔의 륙촌올바의 부인에 신뎡보라는 이가 잇는데 아마자긔어머니가 륙촌올바의집에가서 잇스면서 그부인의 일홈을빌어 편지를한줄로 짐작하고 쏘쏘를업시 자긔어머니의 소식인줄로 미덧던것이다 긔이하게도 네사람의 동성동명으로인하야 모녀로 맛나게된 그들은 인간의 무지와 긔구한인연을 우스면서 실로 친모녀나다름업시 지내게되엿다

정말딸尹慶愛 뜻밧게차저와
필운동에우슴룡산

그럭저럭 이십여일을 지난후 이월칠일아츰이다 뜻밧게 죽엇는지 살앗는지 어데가잇는지 모르던신뎡보의 친딸윤경애가 대문안을 드려서게 되엿다 그제야 비로소 긔다리고 애태우든 손목을 마조잡고 깃붐에넘치는 눈물을 흐리게되엿다 이날부터 그집에는 무엇인지 모르게 봄우숨이떠돌게 되엿섯다 이에이런 거짓말 갓기도한 참말인일장사실극은 끗나기전에 윤경애는잇는자긔남편되는 주씨에게 알리는동시에 다시드러 갈뜻을말하엿다 그래 두번이나 려비가나왓섯는 데 다소의 병치료 하기에 그만이날저날하다가 수개월이 되게되매 남편인 주씨는엇던협잡배가중간에서 유인을하여 어머니무엇이니 해가지고 다려내온줄만짐작하고 반만리 밧게서오직바랄것은 법률의 힘뿐임으로소관종로경찰서로 진정원을데출하게되여 그와가티 두녀자가종로서안에 한바탕우슴을 남겨두게 된것이라한다 뜻하지아니한거짓말 가튼인연으로 얼킨삼모녀(三母女)의『어머니』『녀닌』『동생』하는 우숨석긴 부르는소리는 필운동한모퉁이에서 새업시 흘러나온다 한다 헤어지기를실허하는그들의 압헤는또다시엇더한인연이 부러올것인가? 때마추어부러오는봄바람아! 기리기리 그집뜰안에불어줄지어다

希望의첫길에
시내각중등학교졸업식

就職이便利한 고등상업졸업생

시내고등 상업학교(高等商業學校)졸업식은 십오일오전십시부터동교 강당에서 열린바금년졸업생 칠십명으로 그중에조선사람은 겨우다섯명이오 그들은한일은행(韓一銀行)과『스탠다드』석유회사와 밋금융 조합으로취직하게되얏스며 졸업생 전톄를 통하야 금년취직 상황은상과대학(商科大學)에 입학이 세명이오기타는삼뎡물산(三井物産)만텰(滿鐵)등을 비롯하야 각은행회사와 금융긔관에 모다취직하게되얏다더라

青年學館卒業 우등생다섯명

시내 중앙청년회학관(中央基督敎青年會學館)졸업식은 십사일오후세시부터 동회관에 열리엇다 구자옥(具滋玉)씨사회로학사보고와 졸업증서와 상품수여식이잇슨후신흥우(申興雨)씨의간곡한 훈사가잇섯고 도지사머리의고사랑독과 래빈의축사 졸업생의 답사로식은 마치엇는데금년졸업생은 ◇고등과이십구명중우등생은홍종찬(洪鍾贊)군이오그들의지망은 일본류학이오명 연희전문 고등농림기타 상과학교에지망이 거의전부이라하며 ◇영어과(英語科)졸업생일곱명은 일본류학과 협성신학에비명이오기타는미뎡이며

◇공예과(工藝科)중사진과에 구명이오 인쇄과세명중 우등생은강원묵(姜元默)군이오렬공과다섯명중리득구(李得求)김중룡(金仲龍)량군, 목공과두명중정진용(鄭珍溶)군이각각우등이엇는데 대개는 각각업에취직하며 혹은 그학교에서 일년동안더욱 연구하라는이가만타더라

◇사진은 향하야우로부터 각과우등생홍송찬,정진용,김중룡,리득구

夜學에서夜學으로
청년회의야학부

중앙긔독교 청년회 로동야학부(勞働夜學部) 졸업식은 십사일오후일곱시부터 동회관에서 열고 리상재(李商在)씨의 손으로금년본과 졸업생 열여섯명에게졸업증서를 수여한후졸업한

디에서 밤의수이는 틈을리용하야삼년동안 부절의공을 싸하오든 늘의명예로운 졸업을 하게되얏다는의미깁흔 훈사가 잇슨후 윤을병(尹乙炳)군의답사가 잇섯는데 금년우등생은 권긔윤을 영조이오졸업생들의 지망은 선린(善隣)상업학교 야학부에 지망이 가장만타는데 그들은역시 야학으로학업의 최후를엉하는것은 참으로본바들만 하다하겟더라 ◇사진은우등졸업생윤을병군

短刀가진醉漢 行人亂刺
녀자한명중상
성천군상녹면에서

◇성천군쌍룡면룡문리(成川郡雙龍面龍門里) 장만복(張萬福)(三二)은지난칠일오후두시경에자긔집에서 술을 륙홉(六合)이나마시고 오른손에면도(面刀)를들고 왼손에는자근칼을 휘둘르면서신창(新倉) 으로가는도로상에서 동행하는 남자한명과녀자한명을 찔러중상케하고 다라나는것을 그동리사람들이 테포하야 주재소에 고발하엿는데 그원인은 방금됴사중이나 찔린사람중원인긔(元寅基)씨의맛딸되는원씨(元氏)는매우중상하야생명이위독하다더라(성천)

警部佩劍을가지고 三處에侵入한强盜
순사와격투후에필경데포
삼랑진에이러난강도사건

지난십일일새벽 세시나되야 삼랑진(三浪津)삼화상하는일본사람탕천뎡일(湯淺貞一)이라는상뎜에 강도가드러와서 자는주인의방에드러가 칼을가지고 위협을시작할때에 주인은놀래어 일어나소동을하게되매그 이웃사람 들이호동하야달려들음으로 강도는 그만다라나고 마랏는데 새로데시나되야 그강도는 또삼랑진시가에서 서편으로 약오마정이나 떠러저잇는귀뎐주장(龜田酒場)에 드러가또칼을가지고주인을위협할때에주인귀뎐은놀래어이러나서그만서로격투가되야방에서뜰까지뜰에서마당까지나와약삼십분이나격투하다가 주인은칼을이마에맛고 허리와다리를찔니어마춤내 영에업더지자 강도는다라나고저하든지음에 급보를듯고 달려온립석(立石)순사와 또다시 약십분이나격투하다가 마츰내 강도는포박되야 삽랑진주재소에 다려다가 취됴를하고 그날새벽에 밀양경찰서(密陽警察署)로압송하얏다는데 그강도는 본적을경남산청군시천면내공리(山淸郡矢川面內公里)에 잇는 박덕조(朴德祚)(?)란자인데 그가진칼은 부산(釜山)잇는어느일본경부보(警部補)의칼을도적하야가지고 부산록뎡(綠町)어느일본사람의 집에서도 강도질을하다가 실패하고 삽랑진으로온것이라는데 그자는 전과(前科)도잇슬뿐더러 여죄가만타하야방금엄중취됴중이라더라(밀양)

筏橋饑饉救濟
조직회와위원회

전남벌교포(全南筏橋浦)디방청년회 면려청년회 동아분국본보지국의주최로긔근구제회를발긔한사실은 이미 보도하엿거니와 지난칠일 오후팔시에 당디청년회관에서 긔근구제 조직회로모히어 여러가지사항을 결의하엿스며 다시위원회로모히어 아래와가튼결의를하엿다더라(벌교)

一、會員의資格은 拾歲以上出金하는이로改定함
一、募集期限은 五月末日까지定함
一、場所는 筏橋地方青年會館으로定함
一、出張日割은 三月?日부터로함
一、委員 委員長蔡重鉉 書記兼會計尚烋 委員金容國外九人(벌교)

『勞農會員에게는 小作權을안준다』
악사음의무리한압박으로 소작권빼앗긴사람이만타

전라남도 해남군북평면 영전리(全南海南郡北平面永田里)김찬홍(金贊洪)이는완도군로화면충도리디주 (莞島郡蘆花面忠道里地主) 김농오(金弄午)의 사음(舍音)으로 수년전부터 디주와 함의 여러가지수단을 부려일반소작인의 원성이비등하든터인데 그동리일반소작인은 작년팔월경에 로농회를 조직하고 만흔활동을 하여오든중 금년에 사음 김찬홍이가 디주의 지시라하고 일반소작인에게 하는말이『로농회원에한하야는 누구를 물론하고 일두락의소작도줄수가업다』하며 와닥업시 소작권을이건식히면서 위협도하며 협박도하여서 소작권을 작고박탈한다는데 사는곳에 디주의땅에 목숨을걸고 사는리춘화(李春化)외여러소작인은 늙은부모와 어린처자를이끌고 살길을 구하는 참담한광경은일반이참아볼수업다한다(해남)

窃取犯人逮捕
金時計類
고성경찰서에서데포

강원도고성군고성면동리 (江原道高城郡高城面東里) 에서음식뎜영업하는유추월(兪秋月)의집에서 고용사리하는 리시언(李時彥)(二三)이는 지난구일에자긔집주인의금팔뚝시계(金側腕卷)현가 오십원자리를 훔쳣다는바 리시언은 전과도잇고 또고성면동리(高城面東里)에서음식뎜영업하는김정숙(金貞淑)의방에잇는『와겟트』까지 훔친것이란로 되엿슴으로 고성 경찰서에서는 상당히 엄중처벌하리라더라 (고성)

職工幹部도檢擧
해결될듯하든평양인쇄파업 경찰의간섭으로험악하여저

본보에두보한 평양 인쇄직공동맹파업사건(平壤印刷職工同盟罷業事件)은 그후두편의량해로해결될서광이 보히기시작하더니 십사일밤 열두시경에 이르러평양경찰서는 돌연히인쇄직공편의리재명(李載明)호윤국(胡允國)림창성(林昌盛) 손중석(孫仲奭)등제씨를검속하엿는데 사건이 거의해결 되려하는근일에이르러 경찰이그가티 고압뎍태도로 나감으로인하야 동맹파업사건은 더욱험악하여질 념려가잇다하야 경찰에대한 일반의비난이만타더라(평양지국뎐화)

雙胎産母危境
아이는무사하나 긔한으로할수업다

전주서뎡칠십구번디(瀛町七九)에현주소를둔 서덕삼(徐德三)은원래 극빈한 생활을하는중에 지난 정월이십팔일에 그안해김순이(金順伊)(三?)가쌍동을이 ……

六十石드리 배세척
경성부내의동오줌처치곤자

경성부삼십만 시민으로부터 날마다나오는 대소변이 일천이백석이나되는데 부에서는 각반에난호아 헌데모하서 갓다바리게하는바 이미경성부의 대소변처치에대하야는 수년래 여러가지로연구하야 처분방법을 생각중이라는데 근년농촌에 용을만히 하게되엿슴으로 경성부에서도 여괴에 주의하야경성부근 농작디에 대소변을난호아주기로 뎡하고 십사년도에는륙십석드는 배세척을 만드러서한강하류(漢江下流)김포(金浦)연안부근일대에 난호아 주기로되엿는고로 대소변 처치에는 힘을덜게 되엿스나 아직부에서는인비연구(人肥硏究)를계속하야구미 제국에서 하는것과가티니탄(泥炭)에 대소변을 흡수식혀인비제조를 시험중인바 그성적이 자못량호하다는데 그러나니탄비료 제조비용이 과연리해가 상당하겟는가를 연구중이라더라

종명자

▲일로조약이된후로 일본에서는화태북부에잇든군인들을돌려오게되얏는데, 그곳에는조선사람도만히잇슴으로이에대한모든일을마타보게하기위하야 일본복지산(福知山)보병데이십련대에 잇는 조선인중위정훈(鄭勳)이라는 사람을 그곳에떡파하게 되얏다고▲일본에서온뎐보에 의하면 그는일본녀자와동거하며『일선융화중위』라하는별명까지 듯는사람이라고, 아모리나 조선사람을 너무괴롭게나 하지아니하면 다행이지▲개성디방의『치부법』을 연구하기위하야 일본중앙 대학교수모씨가일부러 조선에 오리라고한다, 조선사람학자중에는개성치부법을 연구한 사람이몃명이나되는가,붓그러운 일이아니고무엇이리오

江陵邱山事件
책임경관면직
학생들은등교하여

강릉(江陵)에서 순사가 학생을 구타하고 순사부장이 학교교장을불법감금한 강릉군성산면 구산사건(江陵郡城山面邱山事件)에대하야는 긔보한바와 가티학부형회에서 결의가 잇슨후강릉 길뎐(吉田) 경찰서장이 상당한 처치가 속히잇스리라는 언명으로 학생일동은 길뎐서장의말을 신뢰하고 그이튿날부터등교하게된바그후길뎐서장의 처치 에대하야일반은 심히주목 하던중드되여 길뎐서장은 폭행순사홍윤석(洪允錫)과 불법행위한 순사부장광겸주평(廣兼周平)은면직을식혀버렷다 더라(강릉)

◇집일흔아이 십사일오후에 시내 광희뎡(光熙町)부근에서 약다섯살가량 되어보이는어린아이가 방황하는것을 훈련원파출소(訓鍊院派出所)에보호중이라는데 아이임자는 차자가기를바란다고

在北京天道敎 萬化補習學院
고학생을위하야 새로히설치하여

북경(北京)에잇는 텬도교인(天道敎人) 들은동교회내의 배호지못하는 청년을지도코저 지난십일에텬도교 청년 검학장려회(儉學獎勵會)를 창립하고그회의사업으로 만화보습학원(萬化補習學院)과부속 간이상공장(簡易商工場)을설치하야 적은학비로공부하는 학생을 도읍고저한다는데 한사람이 일년에이백원이면 삼백원만 선납하면잘공부할수 잇다하며 학생은조선안각디방 종리원(宗理院)에 뎡하야 시험을치게하여 금년팔월에 데일차로 모집할터이라하며위원으로는 남형우(南亨祐)리성룡(李成龍)최동오(崔東旿)씨외 사씨가피선 되엿는데사무소는 북경북신교 데자호동십륙호(北京北新橋梯子胡同十七號)에잇는 텬도교 종리원내로뎡하엿다더라

麻浦雄辯盛況
일등은리경규군

마포청년회(麻浦青年會)주최의청년단데웅변대회는예뎡과가티십사일 오후칠시부터 그회관에서오석근(吳錫根)씨 사회로 개최하얏는데 일곱단데 대표자의열변은만장의 박수로 마쳣스며 로정일(盧正一)씨 심판으로 일이삼등을뎡하엿다더라

一等우리와鬪爭(滿鐵工友)李康珪
二等青年의義務(光活)李基童
三等朝鮮青年아일어허거라(從興)康俊杓 (고양)

崔斗鉉氏長逝
해주교육계의은인

해주유지최두현(崔斗鉉)씨는십사일 오전두시해주 자택에서서거하엿는데 씨는해주에서 각방면으로 만히활동하든중 더욱히 교육에 공로가만흐며 장식은십륙일오전 구시에 거행한다는데 향년은오십사세라더라(해주)

漢城講習院復活
남녀학생모집중

시내 락원동에잇는 한성강습원은이래 수년동안 주위의사정으로 로뎡지상태에 잇더니 일반유지의찬조와 주무자제씨의 성력으로다시 경영하게되엇다하며 강사는 각중학교강사와 기타고명한이를 망라하얏스며 제반시설도완전히하고 남녀생도를 모집하는중이라더라

運動競技

變動되는學生運動界 各校(26)巡訪

桃花에물드린 好壽敦女高軍

『桃花는맑은물에 山影조차잠겻세라』라는詩를 읇풀만한 彩霞洞을가즌 松都의 好壽敦女子高普軍은昨秋부터京城에서庭球코취를請聘하야斯界의奬勵를수이지안엇다그럼으로今年에는京城에서열리는大會에多分出場할터이라하니桃花빗에곱게곱게물드린松都의處女軍의야릇다운活躍을볼날도머지안을것이다

◇元信天(庭球選手)未定 ◇崔以福(同) ◇蘇有甘(同) ◇白有甘(同)

五種競技資格

極東『올림픽』選手權競技大會의五種競技(走廣跳。槍投。二百米。圓盤投。千五百米)는再昨年大阪에開催되얏든大會에서國際『올림픽』의制度에따라五種目中三種目의成績에依하야競技할수잇는資格의有無를決定하얏는데今夏『마니라』에열리는大會에는五種目全部競技를하고其全部에亘하야優秀한成績을엇는者로서資格을決定하기로하얏다(東京電)

陸軍各師團 對抗競技會

◇日本의初有事◇

日本陸軍戶山學校內에新設中인四百米『트락크』가來四月中에完成됨을따라五月下旬頃에는在東京將校兵士의大競技會를열고今秋에는同日本의各師團對抗陸上競技를行하게하며이러한後에는一般學生과優劣을다토울터이라한다(東京電)

重量拳鬪選手

英國拳鬪家『돔·헤리이』氏는『페푸』軍曹와싸와英國에서重量拳鬪選手權을得하얏다(倫敦發電十日)

强步記錄突破

國際『올림픽』大會에서두번이나覇權하야一萬米强步의選手權을어든伊太利人『유고파리지엘리오』氏는十日米國은하이오州『그리떡한드』에서五千五百米를二十五分二十一秒五分의一로强步하야世界의記錄을지엇다또芬蘭選手『리도라』氏는三哩四分의一을十五分五十八秒五分의二로突破하엿다(東京電)

鎭海公普期成總會 不一하야幾多의波瀾으로期成會 …… 當日決議事項은如左하다

金氏의慈善 忠南洪城郡 …… 金氏의稱頌이藉藉하다고(洪城) 一、母校設立者裵博士敎育 ……

元山驛貨物狀況 ◇發送 乾明太一六〇、增魚二一 三〇、石炭二一六、勞働六一生 …… 十三日부터三日間開會하기로하 ……

廣告

肇極殿建築費는會長의寄附한朝鮮史略代金과會員中同情金으로豫算하와方今始役인바已定各道理事及派員은一幷撤廢하고左記人員으로改選하오니京鄕僉位는照亮하심을爲要

左記理事 京畿閔泳元 金炳鍵 金丙璇 忠南李潤鍾 申泰俊 忠北李亨載 全南李重玉 宋寅勉 安載萬 柳學圭 全北南敎熙 李正儀 林應喆 慶南成鎬恭 金永培 慶北金鎔懿 咸南金玉綱 咸北韓燦 江原道金炳羲 金炳華 黃海道宋柱憲 金相璧

派員 李容浣 宋圭相 成斗永 丁鎭 蘇寅在 李元應 金九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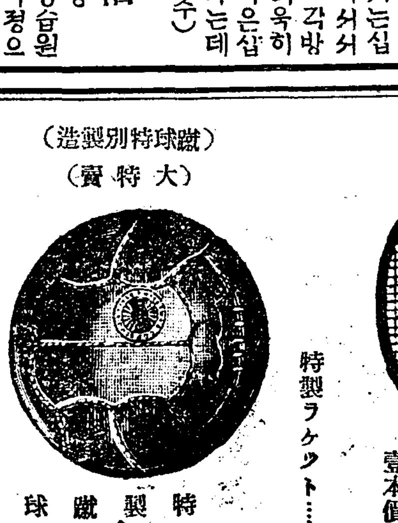
再京鄕間會員中本會에對하야同情金으로出義하신이는何年何月何日何人의게交付하얏다고本事務所로詳細通知하심을望함

京城府昌信洞百十五番地 肇極殿奉建期成會告白

浪承杓王大人以宿患陰二月十六日(三月十日)上午六時別世茲以訃告
出殯 陰二月二十四日上午十一時於京城禮智洞四十九番地自宅
永訣式 同日下午一時於龍山驛前
葬地 忠南大田郡杞城面龍村里汶山
返虞 陰二月二十七日下午四時
乙丑二月 子 承重孫 孫 護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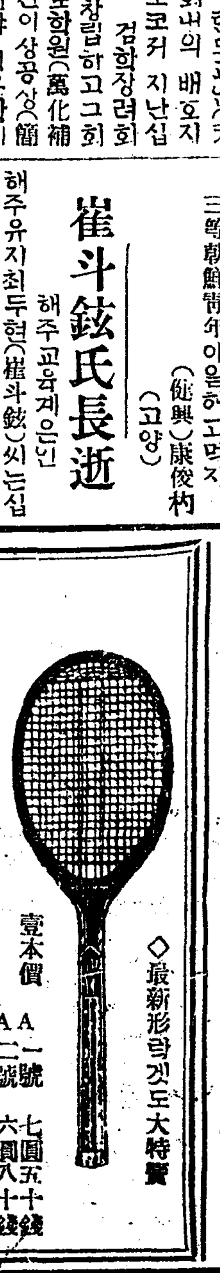
運動具販賣部

(蹴球特別製造)(大特賣)



特製蹴球

特五號	七圓
上五號	六圓五十錢
特六號	七圓五十錢
B五號	五圓五十錢
B四號	四圓五十錢



◇最新形라켓도大特賣 特製ラケット 壹本價

AAA一號	七圓五十錢
AAA二號	六圓八十錢
AAA三號	五圓五十錢
AAA四號	四圓五十錢
AAA五號	四圓
AAA六號	參圓

京城寬勳洞一八七 琴喜樂器店 振替京城一四三〇九番

唐紬木

地方代理店에告흠
最初資金貳百圓利用하면其後無資本으로每月百餘圓을收得하는事業
本所는我朝鮮人의衣服地에上下階級無히共通使用할만한「唐紬木」을織造販賣中業務擴張에從하야各樞要地特約店을募集하니希望諸氏는來議 又는二錢切手同封照會이오면說明書進呈
京城府太平通一丁目二十九番地 唐紬木織造所主 金瀅根 振替口座京城一三二三 電話光化門五九一

檀木賣却
金化郡에在한檀木(立木)材量約一萬尺을廉價로賣却하오니希望이有하신분은本店에來談하시거나照會하심을切望하나이다(運搬은極히便利함)
京城長谷川町九七 富士吉商會 電話本局三九九五番

◎京城簿記學院 京城都染洞三二番
○學期開始四月五日 不問年齡 六個月卒業 晝夜各科 (光化門側)
本院은時代順應에伴하야簿記學을實踐敎授하오니實業界에活動하라는靑年은來學하라 規則書要者ᄂ郵切手送

苦學生製造品 品質이優良 價美하고堅固 比할데無한
登錄商標 서울고무

서울고무신 京城南大門通五丁目六八(京城驛前)
特約店募集
서울고무總販賣部 長距電話本局參七壹番 振替京城壹四〇九番

社說

國民黨과中國政界

—今後影響이如何?—

一

孫中山의逝去에關하야 吾人은자못煩說에過한執筆이잇섯다 이는위낙執筆者의 本意가아니어니와 孫中山의逝去로因한中國政局의影響이어떠할는지 그는자못無用한일이아니라 吾人은이제잠간그管見을述코저한다

現下의中國政局의重心이 과연어데잇는지 그는매우疑問이다 그兵力의가장優越한點을보아奉天의張作霖도 隱然重心이라할것이다 實際에잇서서 軍國重大의事項은 반드시 張氏의方寸을기다려 써重要한參考를하는바잇는形勢이니 그가中國政局의一重心인것은 否認할수업는일이어니와執政政府의主人公인段祺瑞氏가 비록權威가漸減된形勢임에不拘하고 現中國의正式政府의代表者로서 스스로그政局의重心을지음이 다시贅言을要할바아니다 그리고段氏의抱負인善後會議와 및그國民會議의開催로서國憲의訂正과軍制改革等의政綱이 各派軍閥의頭目들의 諒解및贊同과함께 孫中山의好意的應援에 依하야더욱그有終의美를이루고저하든것은 또한否認할수업는事實이엇섯다 그러나孫中山逝去後의그形勢는如何할지?

二

孫中山은中國革命의元勳이다 그가千秋의偉人으로서 後進者들의景仰의對象이될만한것은의심업는바이다 그러나그는理想家의典型이라고推稱되느니만큼實際에迂遠한傾向이 잇든人物이엇섯다 그러나 그의奮鬪的精神과包容의德은 오히려그大傘下에能히多而多樣의人物들을消化하게되어 이를主義上으로보매 자못濃厚한國民主義인者도잇는一面에는 다시매우鮮明한『맑쓰시트』도잇서서 그의思想의距離가자못疎遠하야合致키어려운者들도 一準로同一한政黨內에包容되어 자못世間政黨界의一特徵을表示하니 이는第一로實際의政權에멀어저서 依然한興中會 同盟會等 秘密結社時代의舊態를벗지못한事情에도根由한바이다 그러나그大部의原因이 孫氏自體의 人格的偉大에잇는것은또한否認할수업는일이라孫氏의逝後그黨의運命上에 容易치아니한影響이미치고從하야余中國의政局에도不少한關係가잇슬것이다

三

現在北京에進出하야馮玉祥의國民軍과表裡相應하야 자못縱橫의術策을講究하야써政局의發展을꾀하는汪兆銘以外의所謂幹部派諸人은 그의左翼을代表하는者로서 그의同志에는陳獨秀를筆頭로서 李大釗、李石曾等자못急進的社會主義者들을網羅하야 隱然히執政政治를反對하고 赤露流의 委員政治를主張하며 그의對外態度로서는 露와 接近하야 日本을排斥코저하는者이니 그의 一派策士가長江一帶의 直派餘黨을 結合하야 써段政府를 排斥하고兼하야日本에對한反感을要處코저한다함은 비록準信할만한實現性의일이아니라하드라도 그의感情、氣分等을表明하는바이라그努力의大小如何를別問으로하고 항상中國政界의一禍因이되는것이다 이에對하야上海에占居하는唐紹儀、章炳麟等을中心으로辛亥同志俱樂部를組織하야널리舊革命黨의同志를 糾合하야장차活動을 開始코저한다하니이도또한 그詳細한消息은接하지못하엿스나 그는곳國民主義者의團結로서 左翼派인 前者에比하야 그右翼의團結을意味한바오 그러면段政府政策은곳好意의中立이나 또는相當한援助의意思를維持한者로서 비록速斷할수업스나漸漸分裂의兆가顯著하여지는바이라 孫氏의逝後자못그形勢가觸然할것이다

四

段政府의現下地位는數大論評할바잇섯다 그러나孫氏의逝去는一面으로一個敵國의消滅된感도업지안치마는 그로因한國民黨의分裂 및그左傾分子의自由行動은적지안흔 影響을미치고말어서多少의波動을미츨것이다 現下 全國民黨을 統御할者汪兆銘氏는才幹 識見은何如間그의威望 力量이不足한바잇슬것이오 胡漢民氏는자못好好한人物이잇고 張繼氏또한相當한包容性이잇는듯하나一客將인感이업지안흐며 孫科氏는비록遺族의聲望을繼承하는便宜가잇스나 어린그威名과聲望이아울러不足한바잇슬것이니 國民黨의分裂은 畢竟防止키어려울것이오 그의革命運動과및政局收拾의局面에미치는影響이 자못注目할만한것이다 段政府가 이國民黨의分裂의傾向에因하야 意外의離間을 遂行하리라고는推斷키어려운바이다

가뎡부인

희랍녀자의 혼인하는풍속(一)

혼인하기새지신랑과신부가 서로맛나지도못한다는풍속

발칸반도(半島)는 토이고(土耳古)희랍(希臘)、루마니아、쎌비아、몬테네그로(黑山國)등여러나라가모히어된곳이니여러나라가모힌그만큼 또한 모든풍속과습관이이상할것이올시다 그중에

세계문명 의부원디라일키를밧는 희랍의복잡하고 괴이한결혼법을 소개하고저 합니다 먼저 약혼하기전에 대개는그디방의승려(僧侶)가중매자가되여 새악시의 부모를 맛나보고새악

◇—『쌀칸반도』의녀자들—◇

시의소유품과 살림사리할 세간의목록을 적어서 신랑집으로가지고갑니다 신랑집에서는 그목록대로 하여주겟다는 계약서를써서 새악시집으로 보내면그로부터 결혼의정식을 밟게되는것이올시다 결혼당일에는 신랑과신부가 결단코얼골을 대하지아니하며 결혼전일에도 여러가지의식이만흐나 오즉 그두사람은서로 눈코도구경치못하게 됨니다 그보다더심한것은 결혼식을거행한날밤 까지도 아조딴사람과가티 지내인답니다 그러면서도신랑의부모와 시형데들 까지가혼인권에신부를

맛나보는 풍속이잇스니 맛나는날을 토요일밤으로 뎡하고원동이 신부에집에모힌후면 커부모가 구존하고 복잇는아이에게 바구미를 들려서잣중을헤치고 나오게한답니다 바구미속에는반지、양털수건、의복감、구두、과자、건포도、술병이 드럿답니다 그쌔에신부는 단장을곱게하고 화려한의복을입고 나와서중매한승려와 장차 자긔가섬길시부모 시형데들의손에 차례차례키스하고 가만히 의자에안저서눈을감고 잇다합니다 이러케모든절차가 지나면 시아버지가 새며누리쌤에 키스하고 바른손새기손가락이나 무명지에 반지를 씌워주고 레물돈을 나리는것이올시다 신부의 집 에서도 신랑을 위하야 예비하여둔 내의와그외에여러가지물건이며혼인반지를 신랑의 아버지께내여준다합니다 그리고 혼인하기전주일토요일에는신부의집의갓가운친척과

새악시의 동모들을초대한답니다 그날청한동모는 젊은부인과 처녀들은 쌀을담은채에무화과、호도가튼것을 담어서가지고오는 풍속이잇스며 처녀들은채를 흔들면서 노래를부른답니다 처로친쌀은 그다음월요일에다른쌀과 석거서 절구에찟는것이올시다(계속)

부모업시서(五) 사는어린이들

다른사람을부모라부르며 부칠곳업는신세

◇……춘풍추우의한만흔생활을한다……◇

책임마튼윤명씨고심

인가가드문 옥천동(玉川洞)놉흔언덕 제철니도라오면 룡음이옥어지고 새들이 노래할것이요 압흐로 한줄기 시내물이감도라들지니

경개 도조흔데니와위생에매우적당한곳이올시다이러한자연속에 터를세운경성보육원(京城保育院) ──아비일코어미일코 혈혈단신어린몸이 의지할곳바이업서 치운날에 헐벗고주린배를 그러쥐고길가에 방황하는가련한아이들의 유일한 생명길이되엿슴니다 매정 구년십이월일일에 김병찬(金炳贊)씨의발긔로 리상재(李商在)、윤치호(尹致昊)김일선(金一善)오긍선(吳兢善)사씨가협력하야창설한곳이라 합니다 긔자는순송이퍼붓고 구진비쌀이 오락가락일긔가 음산한 십삼일오후에그곳을 방문하엿슴니다 언덕길을올라서자 강실(講室)안에서는 아이들의 글읽는소리가 들리고뒤시로직조(織造)긔계를노흔식당안에서는 아이들의 무명짜는소리가덜거덕 덜거덕 구슬부게드들리입되다 원아(院兒)

수는 사십팔명‖산즘생도둘이잇고 공중에나는새도 깃드릴곳이 잇거던 석자의짧븐몸을 지향할곳이업고 은혜한세상에 골육의사랑을 맛보지못하니얼마나 가이업는신세리오 그들을마려서기르는윤영(尹英)씨와 그부인손(孫又豐)씨는 하낫소생을 슬하에 두지못한몸으로써일단정력을그들에게바치고벌서춘풍추우륙개성상을그들과고락을가티한다합니다모진운명에얼키인그들은윤씨내외를친부모가티의지하고『아버지어머니』라부르며모든사정을숨김업시이야기한답니다마치사랑하는가족들이함께 모히원만한 가뎡가티우숨과 화평이 떠나지아니하며사랑의 속살거림이 그치지안는다합니다 그들은매일 아츰여섯시에니러나서세수하고소제하고한방에 모히어엄숙한 마음으로찬미하고긔도하고

셩경 을읽는것으로수양의첫제목을삼어 일과(日課)로 직히다한답니다 나희는 일곱살부터열일곱살까지—보통학교에단이는아이가 다섯명 보명(普明)학당에단이는 아이가 일곱명이요그남아지는 모다 보육원장실안에서 보통학교뎡도로 가르치며금년에는 보통학교에 입학될아이가 여덜명이라합니다 그들은별로 복잡한인간세계에 버물리지아니하고 솔검한 정신으로덕을닥고 몸을수양하는터인즉 번민과고통을 맛보지못하고 걸며로행동을 자유롭게하는지라 셩품이 활발하고신톄가 건강하다함니다 음식은아츰저녁은 더운밥점심은데워서준다하며팟십분지일、좁쌀삼분지일을 입쌀에석고반찬은김치、깍독이、국、 지지미、젓갈가튼것을 번가려주고한

주일 에한번식맛잇는음식을하여준다합니다 의복은 한겨울에 솜옷세벌 보육원안에서 짯는무명으로 하여입히고녀름에는 운동복을 지여자조쌀어입힌답니다 식모가 두사람침모가 한사람 크리스마쓰나음력 정월에는 밤을새여바느질을하게되고 아이들은 새옷을가려입고 세배를 다니며일년에한번식 려행도한답니다 그들을양육하기에 온갓정성을 다하는윤명씨도나는압으로 불상한그들을위하야 더욱더욱 분투노력하겟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당한직업을 붓드려주어야 할터인데요압으로 직조부(織造部)를 확장하고 목공(木工)부 칠공(漆工)가튼것을설치 할가계획중이나어되 마음대로쉬이 되기가쉽습닛가하고말합듸다 남사랑하기를 내몸가티 하라는그리스도의도가 과연그에게서

실현 되는듯—긔자는그에게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의뜻을표하고도라왓습니다주여원컨대그불상한아이들에게은혜와복을나리사압길을빗나게하사이다

◇—밥먹는고아들

서양료리법(一)

홍쏨(집에서만든국)

◇재료 새감자다섯홉、닭의고기석량중、소곰과 호초 조금씩

감자는 껍질을벗기고 일푼두께로컴이어 물에담아 진을쌔이고남비에담어 물한되 다섯홉을부어불우에 올려노코(따로)닭의고기(우육、돈육、도무방)석량중을제가어 호초와소곰을 조금치고지진『쌍』에써러는작은숫갈로 한숫갈 듬북풀어 그속에너코얼는구어서 우에말한 감자담은남비에너코 써오르는거품은 거더버리고 남비뚜정을덥고 퀀퀀히쓰려 감자가발랑발랑 하여젓슬쌔에 나무주걱으로 휘저어서감자를옥개이어(아조 옥개여진것도잇고 옥개여지지 안은것도잇는것이 맛이잇다)조금종숫갈로하나와 호초를쎄리어 마시기조케만드러 국그릇에담아 짜뜻할쌔먹는것입니다

統營에火災

전소십이호

원인손해는됴사중

통영길야뎡(統營吉野町)에십이일오후여덜시에 불이나서 약한시간반동안 계속하고 진화하엿는데 연초전매국 출장소(煙草專賣局出張所)를 비롯하야 집열두채가 전소하엿는데 불이난원인과손해는 방금됴사 중이라한다(통영)

金泉에서도 少女一名轢傷

자동차가질주하여

십이일 하오세시경에 경상북도김천본뎡(金泉本町)파출소(派出所)압헤서시내 자동차가질주하여오다가 마참 거리에서놀든욱뎡(旭町)사는김칠선(金七善)이란계집아이를 치이여 몸시상하엿슴으로 방금 도립병원에서치료중이라한다(김천)

學藝

『유토피아』의世界觀

NOTE에서인表現主義를 (六)

石然生

몬저…後章의參考나될가하야 그의技巧에對하야暫間말하겟다 …(藝術上描現의目的은 卽…外界와結合하야生한 感情을他人에게傳함이다) 그러면…客體의形態色彩를버서나 主觀과客體가結合하야 生成된 超主觀的綜合體를 確實한抽象的인象徵에依하야 表現을하며 聯想作用에依하야 他에로 感情을傳達함에至하게한다하면 그때야말로비로소 藝術이다…創造니다…고할수잇는것이다 卽表現主義者들이 自派의作品을 指示하야 藝術이라 創造라 하고 主張함은여긔에잇슴인것이다 그러면 客體의觀的現象만이表現의目的이아니다 그는觀的經驗에서 他에모든感覺的經驗이結合함이니와 그리하야 卽官能的綜合이『캄바스』에表現되는것이다 그리하야 그變歪에는 『形式上의變歪』와『色彩上의變歪』를그使用하엿든것이다 그러나 다變歪』에依한形態改造는 表現主義의發達과 한가지로反空間的 反時間的이되며 못테는極端한抽象化까지일으리라 (大畧말을하얏스나 以下는後章『表現主義의理論』에서말을하겟다) 그러면 只今까지의綱要를말하야보자 우리……아니現代人은外界의壓迫으로因하야 自我를喪失하기까지에 갓가워젓다 그리하야表現派의運動은 人性으로서 그自我의回復을하라하는것이니 卽人類는 自身의造作物의奴隷가되여바리여간다…그러면 거긔에는靈魂과機械의爭鬪가出現할것이다 自然을征服하라다가 그의復讐에無慘히도捕虜가되엿다 그리하야 人生은自由와歡喜를바리엿다 그리고『魂을…다우…』는『魂을…』하고 人類는叫喚을한다 時代는絶叫를한다 그럼으로 藝術도그와和合을하며 魂을求하려進出하지안으면아니되게되엿다 참으로여기에表現主義가生起한理論이잇는것이다……적어도……印象主義의世界에서는 人類는…다만『눈』이엿슬뿐이나 表現主義의世界에서는人類는『ㅁ』을열며그의靈에對答을하라하는것이다…그러면自然에對한態度를말하면……表現主義는 自然에對하야서는 敵對的態度를가젓섯다 그러고自然의偉力과眞理를否認한다 또 自然은容觀的不變化物이아닌것이다 自然은人間보담도偉大치는아니하다 또自然은元來虛無한것이다 그리하야 그는人間으로하여금 처음으로生命을……부치게하엿스며 形體를만들엇든것이다 卽人間은 感覺을가지고自然을…靈化하는것이엿다 그리하야表現主義는一切의可能함을信仰한다 卽 表現主義는

『유—트피아』의世界觀이다 그는人間을 自身의願望과意志에依하야 宇宙의創造의中心에置하야 宇宙의空間을…時…色彩…自我를가지고 充實케하라함이니 人間은原始로또다시도라가기始作을한다 那 人間은只今暗黑寂寞속에서 君으로밧을본아이와가티 어머니의배로부터…떠러저 이로부터…살아갈 幸福을 그遺傳이나그地上的인生存等의諸條件에對한 問題에…거리낌이업시 自由스럽게 安樂하게살자…思索과 意欲들의根本問題인 個性的自由에關한問題를深考하며또對答하며 이를體系化하기에努力하지안니한다!오히려그하나의創造的인行爲로하야금簡單히이問題를處理하려한다…이러한 生에對한思考는決코大戰의結果가아닌것이다 大戰勃發前에이미 輪廓이되야잇섯다한즉은 이미말을하엿스나 한거름더나아가『舍펜하우엘』의厭世主義에서生하얏다고할수잇다…그리하야 그先驗的見解인『世界는우리의觀念이다』이라는考察을繼承하얏지마는 그것은勿論東洋的佛敎的인歸結『生하자는意志는惡이다 그러면…그는克服을 當하게아니하면아니될다』라는데까지到達함이아니요『니체』의悲劇的樂天觀에結合하야『톨스토이』나『도스토에브스키—』의宗教的博愛主義의影響을바닷다 卽…知的으로解放이된信仰의神秘한힘이…그것인것이다……(유—트피아의世界觀完……)

牙城兄에게

金達鎭

牙城兄!

덧업는歲月은쏫업시흘러서입피고쏫피며 쏫피고 새우는平和의봄이또다시도라왓다

牙城兄!

兄이모진발길에채이고 약속한봄결에쏫기어찬바람쎄를붙고눈보라살을어이는北쪽나라로떠나가든그쌔가어느덧또다시도라왓다煩悶의病魔가속깁히드러서東小門안한모퉁이에서외로히呻吟하는 나에게『金君!나는不得已먼저떠나가니 부대조리잘하야속히 쾌차되어가지고……』하면서외로히病床에누어잇는나를참아떼어노코가기가어려워서엇절줄을모르며파리한나의손을쏙!쥐고한줄기눈물을흘리든그쌔가어느덧또다시도라왓다

牙城兄!

淸津에서大田으로옴거갈쌔에는應當京城을거처갓슬것이며 그쌔에내가京城에잇섯스련만은兄이잇는그世上은무슨世上인지서로消息이막혀서오는지가는지알길이업섯든것이다

牙城兄!

兄잇는그世上에도亦是地方色이려人心이다르며 厚薄이잇느냐? 그리고지금은무엇을하느냐

牙城兄!

밧그로飢寒、苦楚와안으로傷心煩惱를오래동안바덧스니엇지病苦가들업스랴! 憔悴에업킨남빗을對할때며 오고가는汽笛소리를드를때에 얼마나남모르는눈물을뿌리는가! 생각하사록마음이안흐다

牙城兄!

南山에봄아지랑이흘고 漢江에어름이풀리니넷회포가더욱새로워지는同時에 그리는兄의近況이다

牙城兄!

나는 넷날에 兄과苦樂을가티하든 여러先輩들을 모시고지금 朝鮮日報編輯室 한모통이에서아니보낼수업는歲月을 그럭커럭보내고잇다 兄이가장愛慕하든石松兄도 이곳에잇서서서로머리를마조하고 때때로兄의이약이를마지안는다 그리고石松兄은浪雲兄과가티 지난一月부터文藝雜誌『生長』을시작하엿다 그게『生長』二月號인가보다 石松兄이 兄의小說『醇의生活』을編輯하여너켓다고 하면서넷날회포가 다시이러나는지마음을괴! 언잔이하는것을나는보앗다 그때에나는 兄과나와東京으로부터歸國하든길에兄이通絡船에小說原稿를노코왓다고西大門町 엇던집에서 釜山驛長에게편지를 쓰면서 걱정하든일이고요히聯想되엿섯다

牙城兄!

부대너무傷心、焦慮하지말고아못조록健康이되리지안토록하여라 兄의지금그生活이엇지後日成功의根本이아니라! 지금米國에게신徐載弼氏에게서온편지를보즉『成功과 幸福을엇자면苦難과犧牲을바치는努力을하여야된다』고하엿다이것이이제비로소안것은아니지만은何如間다시나에게깁흔늣김을주는동시에兄의지금生活을聯想치아니할수업시되는것이다

牙城兄! 恒常부르짓든그것이各地에서可謂蜂起하듯한다兄이만일잇섯스면勿論한목보앗슬것이다 그러나나는恒常그實行과結果가적은것을恨歎하여마지안는다勿論周圍와環境의關係도업지안켓지만은何如間그들이더좀敏活하엿스면……한다

兄이도르면 또책망할는지모르겟스나나는이미敗北者어라무엇을엇더케하겟다는勇氣조차도모르치나지를안는다거칠은길에풀닙가티떠잇는나의몸은장차엇지될는지모르는것이다 흘길이자기권에바람은또다시부려온다

牙城兄!

兄과내가자조만나고或은 그進路를恒常우리에게 議論하든D다 서로한城中에잇섯스나거의한一個年만에맛나고보니 매우반가웟섯다 그를맛날쌔에붙든 그러나 엄마건에소문을드르니兄을또聯想하지아니할수업섯다 그는우리두사람에게그進路를議論하든그쌔와는아주달려젓다한다 그리하야兄이恒常稱讚하든그의將來와稱讚하든그의決心도인키는모다섭섭히되고마럿다한다 그리고兄이만흔신세를쉿친開島正琪兄도종종맛나서兄의이야기를하엿다그러나멀리우리를차저주시는그를맛날쌔마다차한잔대접을못하고섭섭이작별을하여서石松兄과나는恒常그未安함을잇지못한다

牙城兄!

한달에몃번식보내든편지는보느냐?못보느냐?

病드른京城社會의消息을紹介할만한것은 失業者와乞人이나날이늘어가는중에서서로反目疾視의氣勢만점점濃厚하여가는그것뿐이다 兄아!

—二五、三月七日—

學藝소식

◇露西亞의農民詩人으로 또는『이마지스트』로有名한『에세닌』이年前에世界的으로有名한新舞踊家『이사이도라、당칸』과結婚한뒤에 蜜月의旅行을飛機로하야 그들의親舊들은勿論이오 異域의佳人才子들에게까지회자리엇든것이다◇그러나얼마아니되야結婚은戀愛의墳墓라는것을實證하게되야 病的神經하던『당칸』이어느때에까지든지난바이 農民詩人과同居할수업시 歡樂와幸福의絶頂에까지達한그들의戀愛生活은 어느듯어둡고悠悠한눈물로變하야 愛着하던그것만치구토滅絶와情怨이그들사이에가로막히게되엿다◇이와가튼藝術家의一世一代의悲劇을恨한『당칸』은心志의平穩을기다려自己의本國인『아메리카』로도라가라하엿스나그는벌서『쎌스비키』라招牌를이마에부치게되야米國에서上陸禁止를當하고또棄衝壯嚴한邸宅을巴里로、가라다가 다시 佛國에서또 『쎌스비키』라하야 入國을 嚴禁하게되엿다◇그는갈수업에 발부칠구석을차저간것이伯林市의한구석이엇다 그러나愛的生活에破産하고 過激派라하야本國에서드러가지도못한그는그날그날의鼻下慣色이問題가되야 窮餘에하다못하야 한計劃을내엇다◇그것은『당칸』의全盛時代에그의美貌와藝術에恍惚하야 칩조주오하던所謂各國의有名『쎌조아』階級의『당칸』의手中에잇는戀文을蒐集出版하야 이것을金錢으로밧구고자한것이엇다◇그러나침을흘니고덤비든所謂有名한紳士인戀書主人公들은 이말을듯고 다시식은침을생키고머리를굴그며戀書가世間에公開될가걱정을한다든가

古人의말

山外에有山하니넘도록山이오 路中에多路하니 예도록길이로다 山不盡路無窮하니 안이예고어이하리

學藝消息

◇思想運動(創刊號)는이미發行하엿는데發行所는東京北多摩郡調布町上布田千五同社

◇朴月灘氏 三月創作月評을開闢四月號에寄

◇金東仁氏 小說作法을朝鮮文壇四日부터紙上講演을始

◇金岸曙氏 詩作法同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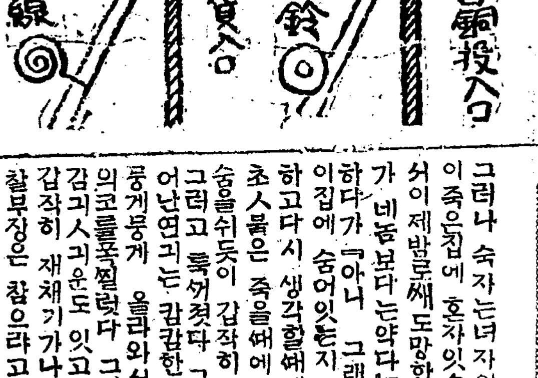
科學

電信電話

自働電話機

盧昌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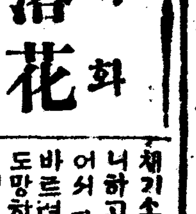
自働電話機는停車場이나其他公園과가튼適當한場所에一般公衆의使用에便利하게設置한것이다 그리하야 使用者는相當한料金을投入하고任意로加入者와通信할수잇다 料金을投入함에는交換手를불러내기前에하는方式도잇고불른뒤에하는方式도잇스나第一의方式은種種不便한點이잇서故障이만흠으로大槪第二의方式을採用한다이自働電話器의原理는普通의壁掛電話機와다름것이업스며 貨幣의投入口를 두곳에設하야잇다이것이이電話機의特記할만한點이다即貨幣投入口는『닛켈』의白銅』鍍金을施한眞鍮로만들고一方은五錢白銅、他의一方의投入口는十錢銀貨에能히適合하도록適當한大를有하고구멍의內部는圖와가튼要領으로構造되야잇다 五錢白銅의便은投口의途中에鈴을다라두어白銅이그곳에다으면鳴音『뎅그렁』거리며又十錢銀貨의便에는時計의螺線을具하야鳴音『퐁』하면서써러지게되엿다 또萬一五錢白銅의投入口에잘못되야十錢銀貨를投入한다면鈴을울리기前에外部에落下하는것처럼裝置가되야잇다鈴이나 螺線으로부터 發하는鳴音은 엇더케하야 交換手에게들리느냐하면 普通의談話와 가티이鳴音이 送話器의 振動板을振動식히어電氣的으로交換手에게들리게되야 잇다 受話器를거른채로貨幣를投入한것으로는交換手는何等의通知가들리지안케됨으로 注意하지안으면아니된다 圖는自働電話機의送話口와貨幣投入口를보인것으로五錢白銅投入口의곳에二重『마두』의形狀으로되야잇는것은五錢白銅이投入되얏슬쌔에부드치는鈴이오又十錢銀貨의投入口에螺線狀으로되야잇는것은 普通時計의『젠마이』와同樣의것이다 이鈴의鳴音과螺線의鳴音과는普通사람의귀로도判斷할수잇슬만큼되야잇슴으로熟練한交換手의귀에는더욱잘드를수가잇슬것이다



落花(락화)

一五

봄바람 번역
맘동산 그림



악한이부르는 숙자라는 말은 부장으로하여금 이집에숙자라는녀자가 살아잇섯다는것을 알게하엿다 그럼으로 경찰부장은 악한의일거일동이 나종에 큰증거가되리라고 생각하엿다 그러고여차하면 불다고 호각을입에대기는 하엿스나 불지는안코또 생각하엿다

『머관정숙자라는것은 누구일가 미인이부리든하인이아닌가그러타이악한은뉘쳔숙자라는하인을수중에너가지고그다음에미인을죽인것이다석란집녀편네를보고막차로주인과가티시골간다고한것은의심을피하기위하야그런것이다그러타이악한이지금하인을찾고잇는것이다 불이 켜젓스니가 잇슬듯한데 대답이업스니가잇는지업는지 의심을내고 잇는것이다』

진실로 악한은의심을내고 잇는모양이엇다 들어오지도 안코 물러가지도안코 엇절줄을 몰라하다가 마츰내 『업는모양이로군 어머를갓슬가』하고불란서말로 중얼거렷다 경찰부장은이것을듯고 속으로 『흥 오늘저녁에미리숙자라는 하인이 기다리고잇기로 약속한 모양이로구나 그러나 숙자는녀자이닛가 주인이죽은집에 혼자잇슬수가 업서서이제밤도새도망한것이다숙녀가 네놈보다는약다』하고 생각하다가『아니 그래도혹숙자가 이집에 숨어잇는지도몰으지』하고다시 생각할때에 꺼지랴든초人물은 죽을때에 마조막으로숨을쉬듯이 갑작히 쌘작하엿다 그러고 톡꺼젓다 그심지에서일어난연기는 캄캄한 어둠속으로퐁게퐁게 올라와서 경찰부장의코를쏙찔럿다 그는 먼저부러감긔시긔운도 잇고 하엿슴으로갑작히 재채기가나라하엿다 경찰부장은 참으라고 입을쏙옴으렷슴으로 재채기는더욱히 큰소리로터저나와다 아! 이것이경찰부장의 운명인가 입에더엿든호각싸지도 밝치로 써러트러서주을내야 주을새도업섯다 그재

채기소리에 악한은 도망하지안니하고 도로침입한게가리 달려들어서 단번에문을잠그고 궤통을바르더서 꼭얼허노앗다 그리고 도망하여버리엇다

경찰부장은 궤속에 엎혀저서사람을 부르고저하나 호각은밧치에잇고 하는수업시 목아려자도록뻐수를부르짓엇다 소리를치면 악한이 다시들아와서 자긔까지죽이어 버릴것은분명한일이나 그대로 썩적못하고 잇는것보다는 나을듯하엿다 올려이면오너라 나를 죽일터이면죽이어라하고 미친듯이 소리를켓스나 밧게잇는 탐정들에게는들리지 안는모양이엇다

악한도 다시달려들지안코 그소리가밧게서 안들리도록 하랴고하엿든지 문을단단히 닷고나가는소리만들리엇다

그다음에는 씨슨듯이 아모소리도업섯다 그러나 경찰부장은백수와 비호를유일하게 미덧다 그들이 직히고잇스닛가 설마그대로도망하게하랴 이제 곳잡아가지고 들어오랴라하고 생각하엿다 그러케되면 자긔도궤속에서나와서 그가품으로 더단단히해 머리라하는생각으로 십분기다리고 이삼분기다리고 마

궤속에서 업더지어잇는것을 몰으고잇나 그러다분명히 그런것이다 이러케생각함에 경찰부장은말할수업는 절망에 싸히엇다 악한을 잡으랴다가 도로혀악한에게잡히어서 쥐독에 치인쥐보다도 더가련한신세가 된것이엿다 졸하고도 또졸하고 붓그럽고도 또붓그러운 이러한일이 잠정의긔록중에 또잇슬가 아니가조고만지혜를엇고 사데에 손을넬써까지 기다린것이 잘못이다 초커녁부터 감긔가들나 한것을이커버리고 또꺼지는 초에서면긔날것을 니첫스며 악한의지혜가나보다 나은것을 낫고이런계책을세운것은 나라는것을 몰으고적이란것을 몰으는 서투른짓이다된경선생가든면이런실책이업섯슬것이다 악한이 처음에고개를 드려노흘째에 호각을불엇더면 조흘것을 그랫더면나종에엇마든지 자백하게 할수도잇슬것을하고 혼자가슴을 태웟스나그것은 다소용업는 일이엇다 아방은더욱히 적막하엿다 아이실책을미루어서 뒤ㅅ일을 경계하자하고 생각함에 간작히몸은떨리엇다 발종이되면 령하록도되는치위이엇슴으로셔 싸지어는드하엿다 더군다나 궤속에서말작도못하고 잇섯슴으로 사지가모다압햇섯다 그는거의 죽는것가핫다 밧게잇는 탐정들은노예와가티 상관의명령을 복종할려이닛가 자긔의무슨 지휘가잇기전에는기나긴겨울밤이 어서새이기나기다릴수밧게는업섯다

멍텅구리

련애생활

(94)

대랑패

(一) 행방불명된 옥매가병이낫든지
(二) 인력거속에 몸을감추고
(三) 의사를차저가 진찰을밧다가
(四) 잉태란 말을듯고 대경실색

空氣緊張한 金海教育會總會
高普新設問題는保留되고 合成學校는繼續維持키로

金海教育會에서는本月十二日午後一時부터金海青年會講堂에서第五回定期總會를開催하고會長許墩氏司會下에事業經過報告가有한後昨年度決算報告를마치고諸問題를討議決定하든中事業進行에對하야란題目에入하야從來目的하야오든金海中央地에高等普通程度의教育機關을設한다는것은于今四五年동안을두고努力하여왓지마는諸般事情으로因하야一時猶豫하고爲先青年會의現在經營인私立合成學校를本會가引受經營하면서從來好時機를보아서本會의目的을完成함이조켓다는發論이잇자會場의

空氣는 緊張하야一時는자못修羅場이되야會議의順序를錯定할수업슴으로議長은會場을鎭定하기爲하야十分間休會를宣言하고相談會를開하야善後策을講究하든바理論이不一하야一方은教育會를解散하자一方은小學校이나마爲先維持하야 가다가將次經濟가緩和하야지는날에本目的을成就하야도늣지아니하다는等여러가지의論爭이잇섯스나結局維持難으로閉校地境에在한私立合成學校를引受經營하고現在教育會의

完全한 既成資金을모하서六學年制完成年度인財團法人金海私立合成學校를만들자는正式決議가成立되엿다는데完全한現在財産은建物、什器、土地、價券을合하야總額이約十餘萬圓이라하며此外에도多少關係者의同情이有하리라는바改選된役員은左와如하더라

會長 許墩 副會長朴錫權 總務崔璟諳 會計裵濬煥 幹事印東哲、裵鍾哲、盧百容、裵基哲、裵德秀 監事裵璉煥、裵秉熙、具滋寶(金海)

妥協하기爲한 雄辯의失敗
江景兩會의問題

忠南江景에서는青年懇親會와相愛會가合併된以後相愛會一部에서는合併을不認하고一部에서는正式合併이라認證하야거의半年이라는長期間을두고問題가解決되지못한다함은本紙 累次報道하엿거니와지금으로부터一月餘前에青年會에서는會舘建築期成會를組織하야同情金을募集中인바相愛會側에서는青年會舘建築에對하야間接으로妨害한다는말이江景地方에떠돌기시작되매青年會側에서는社會事業을妨害하는者는『公賊』이니到底히容恕할수업다하며臨時總會를開催하고相愛會를討滅지는膝對하자는決議가되야着着進行中이든바青年會副會長權寅晃氏와相愛會側幹部李重雨氏가協議한後今番兩會問題에對하야問題가益益擴大될模樣인즉우리는個人身分으로『形式的으로雄辯大會를開催하야兩會를和同하고저하는計劃으로十一日에江景公立普校內에서雄辯大會를開催하고演士 朴祥煥氏는『□□』 李重雨氏는『近代思想의進運』이라는演題로明容駿氏는『爭議喪實』이라는演題下에서雄辯에就하야』라는演題下에서雄辯을吐하엿스나內容을아지못하는聽衆은雄辯大會이라認證할수도업고評論도아니라는疑惑이생기여閉會하기前에半數以上은『貴重한時間』을虛費할것업다고모다解散하고말엇다더라(江景)

海州無影總會
內部革新及規則改定

舞藝藝術을研究表現키爲하야海州에잇는有力한青年으로組織된無影會는創立된지數朔에이르럿스나아모內容도업시看板만을붓치고잇든바이제會員들은慨歎을마지아니하야去十二日下午九時에南本町李龍國氏집에서劉珏鉉氏司會下에臨時總會를開하고左와如히決議하얏다더라

一、會則을改定키爲하야改定委員 劉珏鉉 李龍國 金在實 崔丙漢 簡正爾 李明洙諸氏로選定一任함

二、前에는單純히舞業藝術을研究하얏스나 只今은文藝 美術 影刻等一般藝術을研究할일

三、編輯部를特設하야機關紙를發行할일(海州)

大同江對岸 水田計劃
東拓에서

東洋拓殖會社에서는平壤大同江對岸船橋里約五十町步를開拓하야電興會社의廢水를利用하야水田을計劃하고자總督府에申請中이든바今番認可되엿슴으로近近入札에付하야工事에着手한다더라(平壤)

大邱勞働 共濟會總會
今十六日에

大邱勞働共濟會에서는今十六日下午二時(陰二月二十二日)同會舘內에서定期總會를開催한다는데任員改選과小作問題에對한討議가重要問題이라는바頗히注目할價値가잇다더라(大邱)

義東講習院 昇格寄附募集

義州郡光城面義東講習院은普通學校로昇格하기爲하야總督府當局으로부터寄附金許可를得하야가지고數日前委員劉尙熙、李鳳首兩氏가來義하야東亞本社兩支局의後援으로左記와如히同情金을어덧다고

金斗衡、金柄華、各二十圓 金永勳、申彥浩、高東煜各十圓 金喆嵩、李東郁、崔鴻昭、白恩善、白衡圭、金柄鍊、申彥璘、崔鍋玹各五圓 金志楨、金興喜、金柄文、邊東彥、尹用國、金敎鋼、尹瑞明、崔在裕、張德寅、張明奎、禹彩寔、金碩鼎 各三圓 義州藝妓券番、金碧桃、韓小淡、金紅蓮 金星煥、邊基彥、金亨駿、尹相和、李昌洙、康利淳、李普榮各二圓、朴泳夏、李昌郁、白尙善、尹瑞珍、申彥洙、金濟應各一圓(以下畧)(義州)

東萊에書畫展覽

昨十五日(日曜)午後二時부터東萊公立普通學校講堂內에서書畫家로名望이잇다는靑坡至亨庸氏의個人展覽會를開催하얏다고(東萊)

海西青年 聯合準備
五團體發起로

黃海道海西地方에는十數個의青年團體가잇스나相互의連絡이업슴을따라 運動이 統一되지못함을地方各青年會에서一大遺憾으로思하든바殷栗邑栗川俱樂部、松禾邑松禾青年會、同郡水橋大成青年會、殷栗郡長連青年會、長淵邑長淵青年會에서는地方青年의思想統一과青年運動의方面一致를取하기爲하야去十一日午後七時에海西青年聯合會準備會를殷栗邑栗川俱樂部에열엇는데當日出席代表는十人이오出席代表中姜齊模氏司會下에本會趣旨書及決議案作成委員과地方巡回委員選擧其他諸議事項을討議決定하고同九時에閉會하엿다는데選定된委員과決議한事項은如左하다더라

◇委員

一、趣旨書及綱領規則決議案作成委員은姜齊模、吳仁善、洪昇緒、朴九燮、白俊烈諸氏로選定함

一、地方巡廻委員 長連白俊烈、李秉亨▲殷栗洪昇緒、金相弼、李倫求▲松禾姜齊模、吳仁善▲長淵朴憲紹、郭宪源、李炎夏

◇決議事項

一、創立總會日時는三月二十六日午後四時

一、創立總會場所는松禾青年會舘

一、加入團體의資格은社會青年會에限함

翌日(十二日)午前十時同會舘內에서決議案作成委員會를열고討議한바來總會에提出할決議案은如左하다

◇決議案

一、青年問題
가、青年會振興方針에關한件
나、青年會組織에關한件
다、各地方青年運動狀況調查에關한件

二、農村問題
가、農村教養에關한件
나、農村青年會組織에關한件
다、各地小作制度調査에關한件

三、社會問題
가、女性及少年運動에關한件
나、饑饉救濟에關한件
다、흰치教撲滅에關한件
라、모루히네中毒者撲滅에關한件 (松禾)

草溪公普學藝

草溪公立普通學校에서는去七日午前十時부터同十二時外지學藝會를開催하얏는데頗히盛況을이루엇섯다고(草溪)

洪原에서 咸南蹴球
本報支局主催로

咸南洪原郡에서는朝鮮日報社洪原支局主催와東亞日報分局洪原青年會後援으로來二十一日에洪原公普校運動場에서咸南蹴球大會를開催한다는데大會要項은左와如하다더라

一、競技日時 三月二十一日午前부터二日間
一、競技場所 洪原公普校運動場
一、申込期日 三月二十日外지
一、申込場所 朝鮮日報洪原支局
一、參加金 每團一圓五十錢(申込書添付)
一、抽籤日時 三月二十一日午前九時
一、申込手續 申込書에選手氏名代表者氏名과團體名을明記할事
但選手는定員十一人候補二人(洪原)

大邱三普校 入學志願者
千二百餘名의多數

大邱府內에잇는大邱公立普通學校와大邱女子公立普通學校와大邱壽昌公立普通學校에서今春新學期에收容할學生은合六百名假量이라는데志願者數는一千二百餘名의多大數에達하엿다하며그入學與否는來二十日頃에야決定되리라더라(大邱)

甲川에少年會

横城郡甲川面梅日里에서는去三月九日午後七時半부터同里鄭智鎔氏宅에서少年會期成會를開催하고會則通過와任員選擧가잇슨後維持方針을討議하얏스며來十六日부터體育部主催로早起會를組織키로決議하고同十一時에無事히閉會하엿다는대任員의氏名은如左하다더라

會長李□ 副會長金曾範 李鍾九 總務沈載津 幹事李福男 體育部長□□ 體育金命國 會計朴壽命 評議員及幹事曹□洙 □智鉉(橫城)

江華中青紀念
來十七日에

江華中央青年會에서는創立一週年을紀念하기爲하야本月十七日午前十時에江華合一學校內에서紀念式을擧行한다는데午後에는餘興으로매우意義잇는脚本을選擇하야衆人의觀覽을劃豫定이라하며一般은多數來覽을바란다더라(江華)

饑饉救濟活動 寫眞을禁止
優待券을配付하고 票를濫賣하엿다고

臨溟青年會에서는累百萬饑饉同胞에게조곰이라도움이될가하야去三月十一日에城津座에서活動寫眞을三日間興行하기로警察當局의許可를어든後收入增多策으로優待券을市內有志에게配付하고票를濫賣하야初日은大盛況으로興行하엿는데翌日에所管警察署에서는突然히幹部를呼出하야趣旨는조흐나優待券을配付한것은强制로同情을求한것이며票가지市內로도라다니면서預賣하는故로禁止를한다함으로青年會幹部들은無理함을質問하엿스나별로效果를엇지못하얏다는데一般市民들은警官의橫暴를憤慨한다더라(城津)

鄭安張三氏特志

富川郡永宗面中山里에는近古未有의大饑饉을當한今日에春節의窮乏은實로悲絕慘絕하던바仁川府外里鄭順澤氏와同里安仲根張之煥兩氏가其慘狀을萬一이라도救助코자粟米四俵蠶灣米二俵를中山里極貧者卅四戶에게寄贈하야실낫갓흔生命을暫時라도延續하게되엇슴으로一般은三氏의特志를感謝히녁인다더라(仁川)

河東勞農聯合
十八日에總會

河東勞農聯合會에서는本月十八日(舊二月二十四日)午後一時에河東面事務會舘에서第一回定期總會를開催하기로決定되야各所屬團體에通知하엿는데今番總會에는規則改正과其他重大問題가多할으로所屬各團體에서는多數出席을바란다더라(河東)

栢峴驛上旬業績

京仁線栢峴驛三月上旬業績은左와如하다더라

▲乘車一二、三五九人▲降車一〇、八六六人▲手荷物發送三七七一斤▲小荷物發送八二〇四斤▲貨物發送一一二噸▲客車收入一一四八圓▲貨車收入六〇五圓▲計一七五三圓(仁川)

六個授賞式

公州郡農會에서는去十三日午後一時부터左記品評會及表彰式을擧行하엿다더라

一、公州郡各面聯合面採種畓品評賞品授與式
二、公州郡優良面綱立毛品評會受賞式
三、公州郡棉作指定里洞立毛品評受賞式
四、桑園品評授賞式
五、家雀驅除의表彰式
六、公州郡造林者表彰式(公州)

晋州新春音樂盛況

慶南晋州長老派基督教勉勵青年會에서는同會附屬인勞働夜學會를維持키爲하야新春音樂會를開催한다함은既報한바와갓거니와그定日인去十日午後八時부터同敎會堂에서開會하얏는데正刻前부터場內場外의聽衆이五百餘名에達하야頗히盛況을呈하고同十一時에閉會하얏다고(晋州)

特ㄷ 一言으로말하면價高하고價廉하며無한實品이優劣은正理함을시다하시고近日特別大割引이라는等品이하는此物의位置와耳目을奪하는廣告에惑하지마시고本局에서는特別割引을一切行하지아니하고原價로打算하야貼藥을製하오니一實驗하시옵소셔

藥材는飢渴者의充腹物도아니요奢侈者의外飾品도아니라至大한關係가有한것이니吾人의疾病을治療하는것이라生命의至大한關係가有한것을忘却하야서는아니됩니다乾材買入時로貼藥價에計算함

[品名 — 列順 그대로:] 十全 六 八 八 四 雙 倍 水 肥 調經 / 大補 大補 味 味 六 和 四物 土 兒 種玉 / 湯 湯 丸 湯 丸 湯 湯 湯 湯 湯

上原特製三圓二十錢 三圓五十錢 同八圓 同七圓 三圓 二圓 原特製三圓四十錢 三圓八十錢 上原特製三圓五十錢 三圓三十錢 原特製四圓四十錢 上原特製三圓九十錢 三圓七十錢 原特製一圓三十錢 同一圓二十錢 原特製三圓六十錢 二十貼一圓八十錢 原特製三圓五十錢 上原特製三圓二十錢

補藥專門公司 京城府授恩洞卅番地

天然色美術의寫眞은 金光堂寫眞館 京城瑞麟洞 電話(光)三○八番

工商 實業

極少資本으로未久에幾百幾千圓收入希望이有한化學工業(自宅製造)六種 과家家必買하는新商品五種의內容書를願人에게進呈

京城府光化門通一三二 大成化學加工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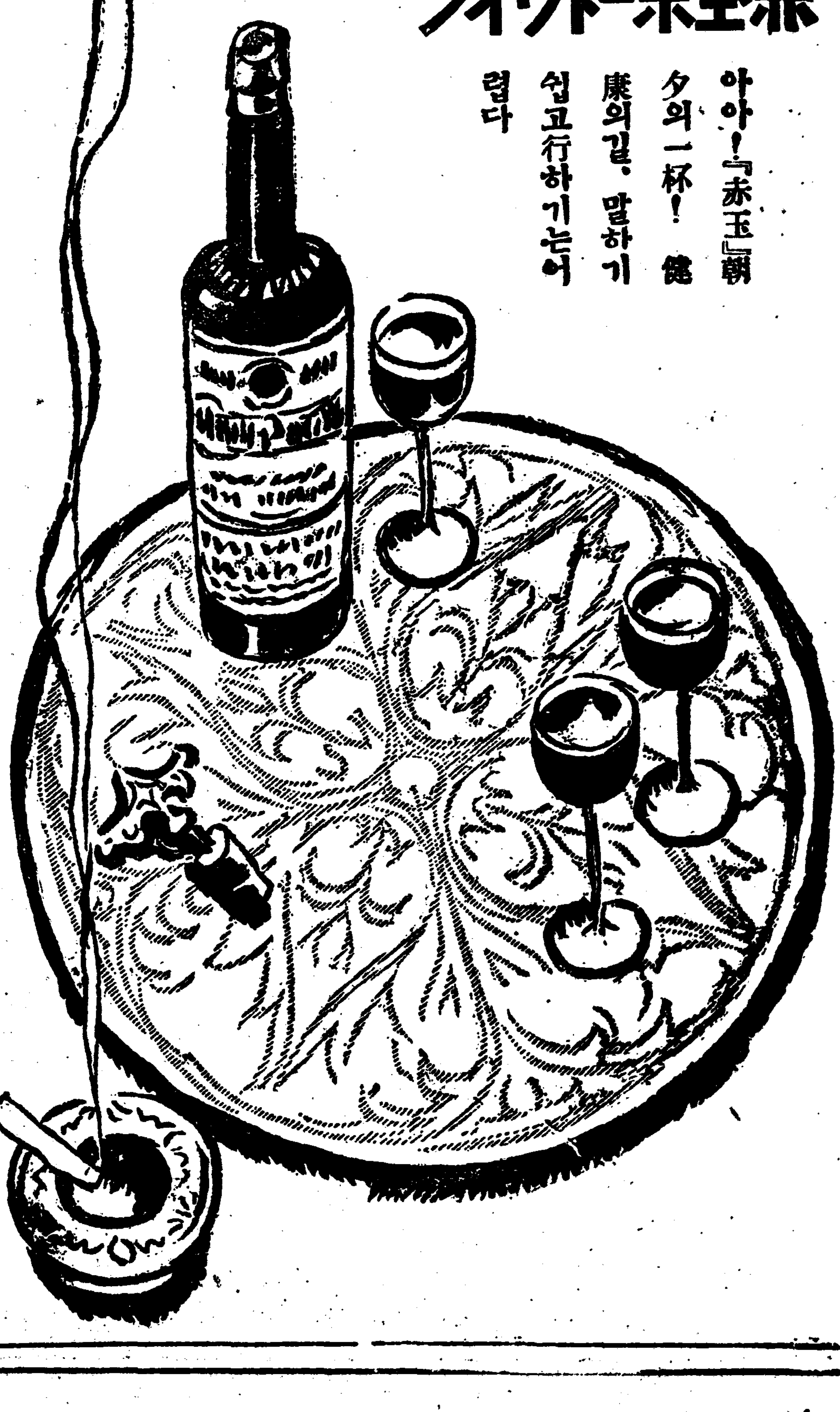
三月八日月曜부터公開 連續大會十日間全部上映
米國세데―支社 喜劇 로이도罐詰職工 全二卷
米國데이스트리―社 大力作 活劇連續 虎의瓜 全十五篇三十卷 自第一篇至八篇迄十六卷上映
푸옥스社 封切場 優美舘 電光三九五番

當三月十四日부터四日間
米國유社날一千萬弗世界大映畫 人情愛戀名畫『메리―고―라운드』全十卷
大連續大活劇 樂園의野獸 二、三、全四卷
米國유社西部劇 活劇 正義의猛者 全二卷
米國유社喜劇 빙글빙글 附髯의惡者 全二卷
松竹 유社 特約 나이뎃는 團成社 電光九五九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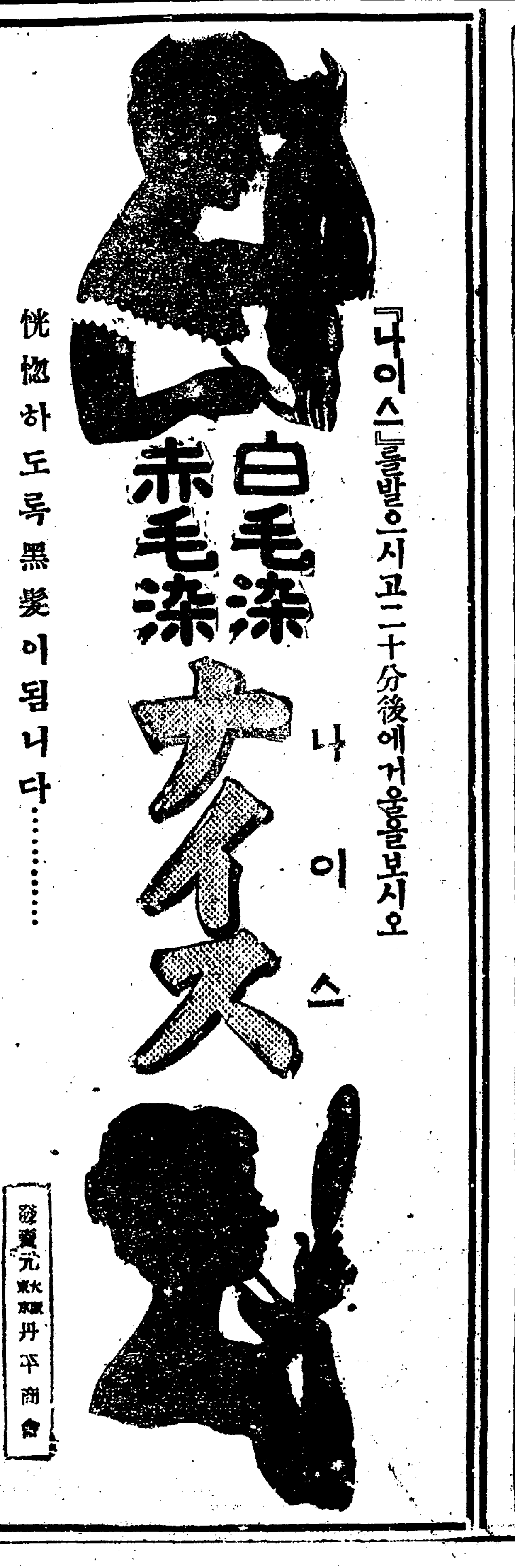
當三月十四日(土曜)부터
米國파社提供 喜劇『어린아해와小切手』全二卷
米國파라마운트社特作 正喜劇 겁쟁이探偵 全五卷
米國파社特作 戀愛劇 月의囁 全七卷
▲豫告▼
復讐連續 우루다스 全二十卷
米國파社超大作品 大米國建設史 幌馬車 全十卷
朝鮮映畫 白南프로덕순特作 沈淸傳 全篇
京城仁寺洞 朝鮮劇場 電話光二○五番

品質本位 花王 화왕 누비
純良의質 至廉의價
항상第一位의聲價를保함!
花王石鹼의光榮
陸軍省 海軍省 鐵道省 東京帝國大學醫學部 京都帝國大學醫學部 九洲帝國大學醫學部 東北帝國大學醫學部 全國各醫科大學 慶應義塾大學醫學部 各府縣立病院御用

至도酒 赤玉ポートワイン
아아!『赤玉』朝夕의一杯! 健康의길, 말하기쉽고行하기는어렵다



『나이스』를발으시고二十分後에거울을보시오
白毛染 赤毛染 ナイス 나이스
恍惚하도록黑髮이됩니다……
發賣元 丹平商會



살결을 데일곱 게하는
クラブ美身クリーム 구라부크림
구라부洗粉

粉末ミルク 미루쿠 グラキソ 구라기소
見本進呈
發賣元 藤澤友吉商店 ...株式會社